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특성과 미래

: 2003 10 8 () 10:00~17:00

: 1

:

10:00 등 록

10:30 개 회 식 : ()
: ()
: ()

10:45 기조발표 “ 가 ”
: (,)

11:35 휴 식

11:45 주제발표
1 “ ”
: ()

12:15 중 식

13:30 주제발표 : ()
2 “ ”
: ()
3 “ ”
: ()
4 “ ”
: ()

15:00 휴 식

15:20 종합토론 : ()
: (), ()
(), ()

16:50 정리 및 폐회

가

가 ,
가

.

,

,

.

.

2003. 10. 8.

儒林

，

가 .

가 .

歪曲 , 混同

.

， 科學技術，

， 가

.

儒道 . 禮

制 가 , 仁義 文化 生活
人情

.

가 後陣 教育 人間中

心主義 資産

.

育 建陽大學校 開校 傳統文化 人性教
育
， 本意 禮制 ， 地域文化
， 人性教育
。

，
，
。
，
。
。
謝意
。

2003. 10. 8.

【개회사】

【환영사】

【기조발표】

한국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과 전망	3
-------------------------------	---

이성무 (정문연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제1주제

충남 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	11
-----------------------	----

황의동 (충남대 교수)

제2주제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실태와 활용방안	25
---------------------------	----

임선빈 (충발연 충청학연구부장)

제3주제

충남 유교문화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	64
---------------------------	----

김문준 (건양대 교수)

제4주제

경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65
----------------------------	----

백영흠 (대구대 교수)

【충남역사문화연구소 학술행사 현황】

가

이 성 무*

1.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가치

우리 사회는 과거 천년의 유교문화에서 새 천년의 기독교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화에서 서구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흘러들어 온 유교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인의예지(仁義禮智)·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의 덕목은 서양에서 흘러들어 온 기독교의 자유(自由)·평등(平等)·박애(博愛)로 중심가치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 물결에 휩싸여 있다. 세계화는 실로 서구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양적인 가치관 중에서 어느 것이 서양의 보편적 가치관인 자유·평등·박애와 가까운 것인가를 따지는 사람도 있다. “인”(仁)이 그러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인(仁)은 의(義)·예(禮)·지(智)·신(信)을 총합하는 덕목(德目)으로 자유·평등·박애를 총합하는 서양의 “사랑”(愛)과 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종속적인 감을 준다.

사실상 유교의 인(仁), 불교의 자비(慈悲), 기독교의 사랑(愛)은 유사한 덕목이다. 그러나 서양은 신(神)을 신봉하는데 비해 동양은 현자(賢者)를 숭배한다. 이 점은 대단한 차이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해 유교의 공자(孔子), 불교의 석가(釋迦), 도교의 노자(老子)는 모두 현자일 뿐이다.

서양은 또한 유일신(唯一神)을 숭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문명충돌이 일어나고, 살육이 자행된다. 서양사 자체가 종교전쟁이다. 이 점은 유일신을 신봉하는 회교(回教)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와 회교는 만나기만 하면 총질을 한다. 유일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교는 이단(異端)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것이다. 근래 기독교 신자들이 부처님 코에 십자가를 그리고 단군의 목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자르는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동양의 종교는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서로 싸우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유교는 이승세계를, 불교는 저승세계를, 도교는 불노장생을 분담한다. 미신조차도 질병과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는 도교, 할머니는 미신, 아버지는 유교, 어머니는 불교를 믿어도 한 밥상에서 함께 밥 잘 먹고 잘 산다. 종교가 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는 장차 세계국가가 생긴다면 그 이데올로기는 도교나 불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교(주자학)도 도교나 불교보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물론 유교와 불교도 갈등관계를 가질 때도 있다. 특히 국가의 지배사상의 자리를 놓고 대결한 때가 있다. 그리하여 고려 이전은 불교가, 조선시대는 유교(주자학)가 지배사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교가 불교를 이단(異端)으로 몰아 탄압한 적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유교는 치국(治國)의 이념으로, 불교는 죽은 뒤의 세상을 맡았다.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불교는 우주와 인간과 만물을 포용할 정도로 종교적이었다.

2. 서구문화 수용의 득실(得失)

17세기부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물결이 쳐 왔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일본보다 늦었다. 중국과 한국은 중국중심 세계관의 골수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중국이 문화의 생산공장일 때는 한국이 도매상이요, 일본이 소매상이었는데, 서양이 문화의 생산공장이 되자 일본이 도매상이 되고 한국이 소매상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화에는 앞섰으나 서구화에는 뒤졌다. 일본은 일찍이 중국화를 포기하고 독자노선을 걸어 왔다. 지정학적으로 섬이어서 대륙과 직접적인 충돌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중앙집권적 문치주의에 휩싸이지 않고 사무라이의 무치주의와 봉건제를 유지했다. 이러한 체제가 중앙집권체제에 못 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구문화를 수용하는데는 유리했다. 그들의 사무라이와 봉건제가 서구의 기사제도(騎士制度)와 장원제(莊園制)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탈아론(脫亞論)을 주장했다. 자기들은 아시

아가 아니라 서구 열강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탈아론의 망령은 오늘날에도 되살아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연대만 강화하고 아시아 나라들에 대하여는 고압적·비타협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이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일 간에는 한때 무역불균형 문제로 갈등이 있는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외교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양국은 공공연히 Ameripon, Yaponica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야스구니[靖國] 신사(神社) 참배,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평화헌법 개정, PKO 파견 등 군국주의로 우경화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미국에 의해 독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근대화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우리 스스로 현대에 맞도록 비판적으로 계승할 기회를 잃었다.

광복이 되자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서구화를 강요당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우는데 급급했다. 그 결과 불과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민중의 시대를 열고,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했다. 뒤돌아볼 틈도 없이 서구화에만 매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민주화·서구화를 서두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났다. 민주주의의 만연으로 내 앞 챙기기와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발달로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또한 돈이 제일이라는 관념 때문에 인간성이 망가지고, 가족과 사회가 해체되고 있다. 이혼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낮아졌다. 경이로운 경제발전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걸림돌들이다.

3. 유교문화는 산업화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 속에 살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산업화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유교문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유교에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다. 긍정적인 점은 이를 현대에 맞도록 계승하고, 부정적인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유교는 문(文)·사(史)·철(哲) 등 인문학(人文學)을 중시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려는 것이 유교의 목표였다. 따라서 산업화로 망가진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유교의 이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교는 도덕적 수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상이다. 우리는 학교교육과 일상생활에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의 유교덕목들을 현대에 맞도록 바꾸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유교는 우리 민족을 천여 년 간 지배해 온 생활철학이기 때문에 이를 현대에 맞도록 고쳐서 보급하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한국인의 95%가 종교에 관계없이 유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지 않은가?

(2) 유교의 교육열을 잘 활용해야 한다. 유교에서는 현불초(賢不肖)를 인정한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만연으로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다. 이견희 회장이 말하기를 “영재(英才)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다. 영재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영재가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열은 영재교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T 산업에는 영재가 필요하다. IT 뿐 아니다. 정치·경제·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 영재가 필요하다. 영재교육기관을 늘리고 영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유교의 근로의식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노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외국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기업조차 외국으로 빠져나가 산업공동화가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열사(熱砂)의 땅에서 햇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일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은 점점 조금할 테니 돈은 점점 더 많이 달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잘 사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분권과 정의를 내세우다 보니 복지비용이 한정 없이 늘어난다. 복지도 좋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쓰다가 나라가 거덜난 경우를 보지 않았는가?

(4) 유교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친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과학이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 발달되면 자연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 유

교는 자연을 경외한다. 순천리(順天理), 알인욕(遏人欲)이 유교의 기본 사상 중에 하나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 삼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동양사상이다. 이른바 삼재(三才) 사상이 그것이다. 천리(天理)에 따르고, 지리(地理)를 살피며, 인욕(人欲)을 막는 것이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기에 국왕은 하늘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짓거나 묘를 쓸 때는 산천의 지세를 보아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을 가려 쓰며, 도덕적 수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지맥(地脈)을 끊어 길을 내지 않으며, 산천에 어울리지 않는 큰집을 짓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인구가 늘고 산업화가 진행되자 환경이 오염되어 물도 공기도 못 마시고, 산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며, 오페수로 강과 바다가 죽어간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자연사랑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5) 한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한자(漢字)를 쓰는 나라이다. 전 세계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인구는 8억 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한자를 쓰는 인구는 20억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세계화하는데 있어서도 영어 뿐 만 아니라 한자도 배워야 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에 집중될 때이니 더욱 그러하다. 한자를 알면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기 쉽다. 아시아가 단결하는데는 한자만한 것이 없다.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익혀야 한다. 요즈음 문과 계열별 모집에 중어중문학과나 한문학과에 학생이 많이 몰리는 까닭도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한자 단어에 익숙되어 있다. 이것을 한글로 써 놓고 읽으려면 2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 단어에 맞는 한자를 다시 생각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도 세계어이니 배워야 한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한다든지,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까지는 없다. 언어는 문화의 주체성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6) 효(孝) 사상과 경노(敬老) 사상을 배워야 한다. 효는 백 가지 행실의 근원[孝 百行之源]이라고 했다. 효도를 배우면 부모를 잘 모시고, 형제자매와 우애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와 신의를 잘 지킨다. 그리하여 가족이 화목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국가가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으며, 혈육간에 재판을 하고, 선배를 우습게 알고 친구를 배반하기 일수이다. 이래가지고는 경제발전이 되어도 소용없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서양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가르친다[敎而富之]고 했으나 동양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 돈을 번다[富而敎之]고 한다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목표인가?

경노사상도 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다. 드디어 여자의 평균수명이 82세가 되었다고 한다. 국가에서도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쉼터 산업을 일으켜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자손들이 노인을 저버리지 않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요즘 무의탁 독거노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자식이 아주 없으면 구호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자손으로 하여금 효심을 발휘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효도를 하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 효자를 표창하고, 효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주위에서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전에는 아파트 당첨권을 주기도 하고 부모를 모시고 살면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전통시대처럼 자손에게 효만 강요하기보다는 부모도 자손을 잘 돌봐야 한다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이어야 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례를 강요하지 말고 그것을 현대에 맞도록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서언
2. 충남유교문화의 전개양상
3. 충남유교문화의 특성
4. 충남유교문화의 위상
5. 결어

1. 서언

충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일찍이 이곳은 백제유학의 본거지였으며, 특히 조선조 유교문화의 전개에 있어 중핵적 위치에 있었다. 대체로 조선조 유교문화의 전개양상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기호유학과 영남유학, 율곡학과와 퇴계학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기호유학, 율곡학과의 주요 활동무대가 바로 충남지역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17세기 이후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계열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과 조화하면서, 새로운 유교문화의 중흥을 모색했던 곳이 바로 충남지역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충남유교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충남유교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미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가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본 연구의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은 시의 적절한 작업이었다고 평가된다.¹⁾ 이를 토대로 충남 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²⁾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정립과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충남 유교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충남대학교 교수

1)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2001년 12월 7일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고, 여기에서 필자는 ‘충남유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 본고에서 충남유교문화의 범주는 조선조 유교문화에 국한한다. 그것은 실제로 그 이전의 유교문화가 갖는 학문적 성과나 가치가 비교적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학적 관점에서의 유교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충남유교문화의 전개양상

충남의 유교문화가 하나의 색채를 띠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 여말 성리학의 도입기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백이정(白頤正 ; 彝齋, 1260-1340)³⁾, 이색(李穡 ; 牧隱, 1328-1396) 등이 있었고, 15세기에는 성삼문(成三問 ; 梅竹軒, 1418-1456), 박팽년(朴彭年 ; 醉琴軒, 1417-1456), 김정(金淨 ; 冲菴, 1486-1521) 등이 충절과 도학으로 이름이 있었고, 또 16세기에는 서경덕(徐敬德)의 뒤를 이은 이지함(李之菡 ; 土亭, 1517-1578), 서기(徐起 ; 孤靑, 1523-1591) 등이 기학적(氣學的) 색채를 드러내는 동시에 도학으로 존경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남의 유교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율곡의 적전(嫡傳)이었던 김장생(金長生 ; 沙溪, 1548-1631)과 그의 문하에 있었던 김집(金集 ; 愼獨齋, 1574-1656), 송시열(宋時烈 ; 尤菴, 1607-1689), 송준길(宋浚吉 ; 同春堂, 1606-1672), 이유태(李惟泰 ; 草廬, 1548-1631), 조익(趙翼 ; 浦渚, 1579-1655), 김경여(金慶餘 ; 松崖, 1596-1653), 신흠(申欽 ; 象村, 1566-1628) 그리고 김집 문하의 유계(兪槩 ; 市南, 1607-1666), 윤선거(尹宣舉 ; 美村, 1610-1669) 등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김장생, 김집 부자의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충남유교문화의 창출에 있어 산파역이나 다름없었다.

충남 유교문화의 창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심축은 송시열이었다. 그는 17세기 조선조에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의 문인이었던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이른바 ‘인물성동이론변(人物性同異論辯)’이 벌어졌던 것이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이론(異論)을 대표하는 한원진(韓元震 ; 南塘, 1682-1751)이요, 동론(同論)을 대표하는 이간(李柬 ; 巍巖, 1677-1727)이었다. 한원진의 문하에 송능상(宋能相 ; 雲坪, 1710-1758)이 있어 송환기(宋煥箕 ; 心齋, ?-1807)로 이어졌고, 또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정호(鄭澹)의 학맥은 송치규(宋樞圭 ; 剛齋, 1759-1838), 송달수(宋達洙 ; 守宗齋), 송병선(宋秉璿 ; 淵齋, 1836-1905)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비사승(非師承) 율곡 계열인 이재(李穡) 문하에서 송명흠(宋明欽 ; 櫟泉, 1705-1768), 임성주(任聖周 ; 鹿門, 1711-1788)가 나왔고,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실학자 홍대용(洪大容 ; 湛軒, 1731-1783)이 나왔다. 아울러 박윤원(朴胤源)의 문하인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임헌晦(任憲晦 ; 全齋, 1811-1876)가 배출되었다.

충남 유교문화의 흐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학맥이 이른바 ‘우계학과(牛溪學派)’ 내지 ‘소론파(少論派) 유학’이다.⁴⁾ 이는 멀리 려말(麗末) 사림파(士林派)의 맥을 이은

3) 白頤正은 충남 남포(현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출신으로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 가서 10여 년동안 성리학을 연구하고 돌아와 가르쳤으며, 李齊賢, 朴忠佐, 李穀, 白文寶 등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4) ‘우계학과’는 아직 학계의 공인된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유명종은 <성우계사상연구논총>에서 우계를 ‘절충파의 비조’로 규정하면서 그의 학맥에 주목한 바 있으며, 최완기는 <한국 성리학의 맥>에서 우계학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론성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필자는 <우계학의 전승과 그 학맥> (우계학보 21호, 2002)에서 우계학맥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우계학과’라 이름한 바 있다.

것으로,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의 계열인데, 성수침(成守琛 ; 청송, 1493-1564)이 조광조의 문인이었고, 성혼(成渾)은 성수침의 아들이자 문인이었다. 그리고 성혼의 학맥은 그의 사위이자 문인이었던 윤황(尹煌 ; 八松, 1572-1639)에게 이어져 윤선거(尹宣舉)-윤증(尹拯 ; 明齋, 1629-1714)으로 이어져 갔다. 따라서 창녕(昌寧) 성문(成門)의 가학(家學)은 파평(坡平) 윤문(尹門)의 가학으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녕 성문의 가학적 전통이 성삼문의 순절이후 ‘은거자수(隱居自守)’, ‘성현자기(聖賢自期)’였듯이, 파평 윤문의 경우에도 윤선거의 강도(江都)사건이후 이러한 학풍을 이어갔다. 특히 윤선거의 묘지명(墓誌銘) 사건과 예송(禮訟) 이후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은 정치적으로는 노론과 소론의 분열로 나타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경향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대전을 중심으로 남인계열의 권득기(權得己 ; 晩悔, 1570-1622), 권시(權誣 ; 炭翁, 1604-1672), 권이진(權以鎭 ; 有懷堂, 1668-1734)이 도산학풍(道山學風)을 열었고⁵⁾, 윤휴(白湖, 1617-1680)도 경학, 성리학, 예학 등 다방면에서 충남유교문화의 다기화(多岐化)에 크게 기여하였다.⁶⁾

그밖에도 실사구시(實事求是) 실학을 대표하는 김정희(金正喜 ; 秋史, 1786-1856), 한말 의병을 일으켜 의리적 실천에 앞장섰던 최익현(崔益鉉 ; 勉菴, 1833-1901), 김복한(金福漢 ; 志山, 1860- ?), 『정역(正易)』을 저술하여 한국 역학(易學)을 천명했던 김항(金恒 ; 一夫, 1826-1898)⁷⁾ 등이 있었다. 이를 학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⁸⁾

성리학 : 김장생, 김집, 김경여, 송시열, 송국필, 송준길, 권시, 이유태, 이간, 한원진,
송능상, 송환기, 송치규, 송달수, 송병선, 송규렴, 임성주, 송명흠, 권이진, 윤증,
최익현, 이철영

예 학 :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 윤증, 윤휴, 권시

5) 安東 權門의 대표적 유림가문의 하나인 이들은 權得己, 權誣, 權以鎭을 중심으로 17, 8세기 대전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은 당색으로는 남인이었으나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윤휴, 윤증, 이유태 등과 밀접히 교류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교량역을 맡기도 하였다. 이들의 학풍은 이론성리학에서 벗어나 유학본래의 내면적 수기를 중시하였고, 마음공부와 실천성을 중시하는 도학풍을 지니고 있었다.(<도산학보> 참조) 따라서 이들의 학풍은 율곡학계의 학풍보다는 우계학풍에 가까웠다고 평가된다. 특히 17세기 충남유학에서 노론, 소론의 갈등 속에서 이들 남인들의 중간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들의 학풍을 ‘道山書院’의 이름을 빌어 ‘道山學風’이라 부르기로 한다.

6) 윤휴는 경주출신의 기호 남인계열 학자지만, 22살 때부터 공주 유전에서 7년 동안 거주하면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권시, 윤선거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그는 예송에서 송시열과 대립하였고, 자주적 입장에서 경전해석을 하여 송시열로부터 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斯文亂賊’으로 몰려 조선조 유학사에서 소외되었고, 庚申大黜陟과 許堅의 獄事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자주적 학문태도와 방대한 저술은 물론 그가 충남유교문화에 끼친 영향과 위상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7) 金恒은 한말 충남 논산출신의 재야 유학자로서, 독창적인 한국역학으로 표방되는 <正易>을 저술하였다. 그는 연산 향적산에서 강학을 베풀었고, <周易>과는 다른 새로운 正易卦圖를 창안함으로써 後天세계의 易理를 제시하였다. 그의 <正易>사상은 오늘날 학계, 종교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의 한국유학사적 위상 또한 재인식되고 있다.(李正浩의 <正易研究>, <正易과 一夫>, <第3의 易學>, <易學餐言> 참조)

8) 넓게 보면 모두가 성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므로 인물에 따라서는 분류의 중복이 불가피하다.

기 학 : 이지함, 서기, 임성주

의리학 : 성삼문, 박팽년, 김정, 송시열, 윤황, 송병선, 최익현, 김복한

인물성동이론 : 한원진, 이간, 현상벽, 최징후, 송명흠, 임성주, 임헌희, 송능상, 송치규

실 학 : 이지함, 홍대용, 김정희

양명학 : 조익, 신희

역 학 : 김항

3. 충남유교문화의 특성

1)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

영남유학에 비해 기호유학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전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⁹⁾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기호유학의 중심인물이 거의 충남지역의 인물이었고, 이들의 활동무대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영남유학 내지 퇴계학파의 경우 사상적으로 매우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성리학만 해도 퇴계설의 계승이 주류를 이룬다. 이를테면 퇴계학파의 경우 김성일(金誠一)-장흥효(張興孝)-이현일(李玄逸)-이재(李裁)-이상정(李象靖), 이광정(李光靖)-남한조(南漢朝)-유치명(柳致明)-이원조(李源祚), 이진상(李震相)-곽종석(郭鍾錫), 이승희(李承熙)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성리학에 있어서 주리론(主理論)의 관점, 리발(理發)의 승인, 칠대사(七對四)의 논리 등은 변함없는 학풍이다. 기껏해야 이진상의 경우처럼 주리적(主理的) 관점이 더욱 강화되어 리일원(理一元)의 체계로 변화되는 것이 고작이다.¹⁰⁾

그러나 기호유학의 경우 이와는 다르다. 김장생-송시열-권상하-한원진으로 이어지는 율곡 직계 계열은 율곡학의 계승에 주력하지만, 이재(李穡), 이단상(李端相)을 비롯한 비사승(非師承) 율곡계열의 경우에는 율곡설만 고집하지 않고 퇴계설도 용납하면서 절충하는 특성을 갖는다.¹¹⁾ 그런가하면 한원진, 이간에서 보듯이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同

9)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76면.

10) 李震相은 퇴계학파의 중심인물이며 조선조 성리학의 6대가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그의 학설은 퇴계의 主理論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理의 주도력과 절대성을 강화한 나머지 理一元의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퇴계의 후손들은 이진상을 이단시하여 배척한 바 있으나, 근래 그의 학설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

異)문제를 집중 논구하는가 하면, 임성주(任聖周)와 같은 주기적(主氣的) 성리학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예학(禮學)의 경우에도 김장생, 김집과는 달리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을 절충, 조화해 보려는 개방적 학풍을 송준길을 통해 볼 수 있다.¹²⁾ 더욱이 윤황-윤선거-윤증으로 이어 내려온 우계학파의 학풍이나 권득기-권시-권이진으로 이어 내려온 도산학풍(道山學風)에서는 이론 성리학에 구애되지 않고, 내면적 자기수양과 실천궁행을 중시하는 위기(爲己)의 학풍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율곡 직계 계열보다 학문적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보다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학풍은 충남유교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율곡, 우계의 학풍에 연원하는 바 없지 않다.

또한 18세기 북학과 실학의 선두주자였던 홍대용(洪大容)의 개방의식은 도암(陶菴) 이재(李縉)의 낙론(洛論)계열에 연원(淵源)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¹³⁾ 19세기에 이르러 김정희(金正喜)는 북학사상의 심화단계로서 실사구시학과(實事求是學派)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청나라의 고증학을 적극 수용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 무징불신(無徵不信)’이라는 학문 정신 하에 학문적 성숙을 한 후, 김정희 문하의 중인계층에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김정희의 사대부 출신 제자 및 중인출신 제자는 다함께 북학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교량역을 담당하였다.¹⁴⁾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송시열의 노론과 윤증의 소론 그리고 윤휴, 권시 등 남인들이 학문적, 정치적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갈등했던 곳이 충남지역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러한 갈등과 논쟁 속에서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보다 성숙한 유교문화의 창출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이해가 결부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 부정적 일면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요컨대 충남유교문화는 그 내용면에서 보아도 성리학, 인물성동이론, 양명학, 예학, 의리학, 기학, 실학, 역학 등 다양한 색채를 띠고 전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방적 학풍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경직된 보수적 학풍 속에서는 스승의 학설을 교조적으로 계승할 뿐, 학풍의 단조로움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 기호유학의 중심에 서 있던 충남유교문화는 개방적 학풍 속에서 매우 다양한 유교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2) 禮 문화의 창출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으로서 예(禮) 문화의 창출과 이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를 꼽을 수 있다. 17세기 예학시대의 도래는 시대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임진, 병자의 양

11) 황의동, 기호유학에 있어서 이기론의 특성과 전개, <국사관논총>, 제6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84면.

12) 宋浚吉은 장인 愚伏 鄭經世의 禮學을 전수하여,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배상현, 조선조 기호학파의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학원, 1991 참조)

13) 김용현, 율곡학의 비판적 계승, 낙학과,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372면.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4, 26면.

14) 정옥자, 위의 책, 27면.

란, 광해의 패륜, 당쟁의 심화, 민란의 발호, 가뭄과 질병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 등으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윤리강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윤리의 재건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더욱이 16세기 성리학 전성기의 지나친 관념화 현상은 성리(性理) 실천으로서의 예학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배경에서 잉태된 예학이 김장생, 김집 부자와 그의 문인인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윤선거, 유계 등을 통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¹⁵⁾ 이들 외에도 남인계열의 윤휴, 권시 등이 참여함으로써 예학 연구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 졌고, 예학활동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송시열, 송준길, 윤휴, 권시 등 예송의 주역들이 바로 충남지역의 인물들이었고, 이 고장을 중심으로 예학의 강학, 연구, 저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송준길은 그의 장인인 정경세(鄭經世)의 예학까지도 섭렵하여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예학풍의 문화적 의의는 윤리적 생활과 삶을 통해 수준 높은 사회를 가꾸어 갔다는 데 있다. 유학의 근본 목적이 인간성의 실현에 있다면, 그 실천적 과정에 예(禮)문화가 자리한다. 따라서 충남이 예문화 창출의 중심에 서 있었음은 조선조의 수준 높은 정치실현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속적으로 충청도의 양반문화를 지칭할 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예문화의 기반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17세기를 주도한 송시열 등 노론세력은 조선이 중화(中華)의 적통(嫡統)을 계승한 ‘중화문화의 담당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중화문화의 실체로서 예문화의 확립은 필수적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17세기말부터 18세기 전반에 드러나기 시작한 조선의 고유문화 창달이라는 이른바 ‘진경문화(眞景文化)’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새겨도 좋을 것이다.¹⁶⁾

3) 의리적 도학풍의 진작

충남유교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의리적(義理的) 도학풍(道學風)을 들 수 있다. 도학(道學)이란 말은 송대(宋代)로부터 불리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에 이르러 도학풍이 융성했다. 도학이란 유학 내지 성리학의 다른 이름이지만, 특별히 도학이라 부르는 것은 성리학의 도덕적 실천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성리학이 지나치게 사변화(思辯化)되고 관념화(觀念化)되어 실천성이 결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성에서 유학 본래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도(道)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다. 도학은 개인의 철저한 수기(修己)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정의의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도학은 의리(義理), 대의(大義)의 실현에 의해 유학 본래의 도통(道統)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성리학적 실천유학’이다.¹⁷⁾

15) 물론 예학이 기호지역에서만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영남지역에서도 퇴계의 문인인 寒岡 鄭述가 김장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예학의 단서를 열었고, 이어 鄭經世, 張顯光, 許穆 등에 의해 예학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김장생, 김집 부자를 중심으로 그의 문인인 송시열, 송준길, 유계, 윤선거, 이유태 등이 중심이 된 기호예학이 예학시대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 정옥자, 위의 책, 23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학의 학문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이는 율곡이다. 그는 도학의 내용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이라 규정하고,¹⁸⁾ 내면적 수기를 통해 성인과 같은 인격을 닦고, 나아가 사회, 국가, 인류세계에 왕도(王道)를 실현 할 때 비로소 진유(眞儒)가 되고 도학지사(道學之士)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사실 이러한 잣대로 볼 때 도학에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도학풍에서 중시되는 것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태도요 철저한 내면적 자기수양이다. 그리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강렬한 도덕의식의 발휘다. 여기에서 도학과 의리적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특징으로서 의리적 도학풍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찍이 충남유교문화의 도학풍 내지 의리적 실천의 모범을 보인 이는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이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규정하고 온 몸을 던져 충절을 지켰다. 성삼문의 죽음이후 성수침(成守琛), 성제원(成悌元), 성제원(成聘壽), 성운(成運), 성우(成遇) 등 창녕(昌寧) 성문(成門)은 ‘은거자수(隱居自守)’, ‘성현자기(聖賢自期)’를 표방하며 위기(爲己)의 학풍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창녕 성문의 의리적 도학풍은 파평(坡平) 윤문(尹門)으로 이어져 윤황(尹煌)의 척화의리(斥和義理), 윤전(尹焞)의 순절(殉節), 윤선거(尹宣舉), 윤증(尹拯) 부자에서 보듯이 벼슬을 단념하고 오직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도학풍을 이어갔다.

다른 한편 15세기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이었던 김정(金淨)은 조광조와 더불어 지치(至治) 실현에 앞장서다 희생을 당했고, 병자호란을 당해 대청의리(對淸義理)에 앞장섰던 송시열(宋時烈), 한말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의리에 앞장섰던 송병선(宋秉璿), 최익현(崔益鉉), 김복한(金福漢) 등에서 의리적 실천의 모범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리적 도학풍의 계승은 충남을 ‘충절의 고장’으로 일컫는 원동력이 되었고, 자랑스런 충남유교문화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4. 충남유교문화의 위상

1) 기호유학의 중핵적 위치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기호유학과 영남유학은 쌍벽을 이룬다. 기호유학은 또 율곡학과 우계학파가 양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학파가 번창하여 왕성하게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충남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율곡학파는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등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중심의 場이 충남이었다. 아울러 昌寧 成門, 坡平 尹門으로 이어 온 우계학파도 노성(魯城)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윤황(尹煌)의

17) 윤사순, 조선 초기 성리학의 전개, <한국철학사>, 중, 동명사, 1987, 144면.

18) <栗谷全書>, 卷15, 東湖問答: “夫道學者 格致以明乎善 誠正以修其身 蘊諸躬則爲天德 施之政則爲王道.”

19) 위의 책, 卷25, 聖學輯要7: “夫躬行仁義者天德也 教養生民者王道也.”

아들 윤훈거(尹勛擧), 윤순거(尹舜擧), 윤상거(尹商擧), 윤문거(尹文擧), 윤선거(尹宣擧), 윤민거(尹民擧), 윤경거(尹耕擧), 윤시거(尹時擧) 8형제와 손자 윤증(尹拯)의 역할이 매우 컸다.²⁰⁾

특히 17세기 이후 정치적으로 노론과 소론 그리고 노론과 남인이 갈등하였던 곳도 충남이었고, 이념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보다 개방적 견해가 갈등했던 곳도 충남이었다. 또한 예송(禮訟)을 놓고 송시열, 송준길과 윤휴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이처럼 기호유학 내에서 다양한 학파 내지 정파가 각축, 대립, 갈등하면서 일면 새로운 유교문화의 발전을 모색했던 곳이 충남이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유교문화는 기호유학의 중심에 있었고, 활동인물이나 내용면에서 기호유학이 곧 충남유교문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던 것이다.

2) 人物性 同異論爭의 주도

한국유학사에서 16세기는 성리학의 전성기로서 사단칠정, 인심도심, 본연지성기질지성 등 인간의 심성문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 심성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천과의 관련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 성리학에 있어서는 천인(天人)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천인(天人)의 관계에서 나아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즉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소위 인물성(人物性) 동이(同異)논쟁이 되었다. 이는 당시 성리학계 최고의 문제 거리였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계속된 한국 성리학계 최고의 이론적 관심사였다.²¹⁾ 이는 일종의 보편, 특수 논쟁으로 정(程), 주(朱)의 리일분수(理一分殊)나 율곡의 리통기국(理通氣局)에 근거하고 있었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을 놓고 리일분수(理一分殊)나 리통기국(理通氣局)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사상사적으로 보면 이 논쟁은 이미 박세당(朴世堂)과 김창협(金昌協), 박세채(朴世采)와 권상유(權尙游)간에 제기된 문제였지만,²²⁾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권상하(權尙夏) 문하의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과 외암(巍巖) 이간(李柬)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모두 기호계열로 율곡 학맥에 연원 하지만, 리통(理通)의 관점과 기국(氣局)의 관점,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관점에 따라 인(人), 물(物)의 관계를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권상하 문하에서 제기된 이 논쟁의 주역은 충남출신의 한원진과 이간이었다. 물론 권상하가 강학을 열고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충북 제천의 청풍(淸風)이었지만, 그 주역들은 충남에 연고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간은 인

20) 윤정중 편저, <노종 5방파의 유서와 전통>, 선문인쇄사, 1999 참조.

21) 윤사순, 인성물성의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21면.

22)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384면.

성과 물성이 같다는 입장에 서 있었고, 한원진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²³⁾

그 밖의 동료들도 양파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주장을 폈으니, 이는 18세기초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200여 년에 걸친 대 학술논쟁이었다. 18세기 이후 조선조 학자들마다 이 문제를 거론치 않은 이가 없을 만큼 이 논쟁은 한국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에 대해 쓸모없는 무익한 논쟁으로 간과하거나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쳤다는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으나, 철학이 어차피 이론화의 작업이라면 이는 분명 조선조 성리학의 진일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을 통해 조선조 성리학이 보다 정밀하게 심화된 것은 송대 성리학이 남긴 과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물성 동이논쟁의 주역이 충남출신의 한원진, 이간이었다는 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위상을 재인식할 수 있다.

3) 禮 문화 창조의 주도적 위치

16세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지나 17세기에 이르러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요구에 따라 예학이 대두되었고, 이후 이른바 백여 년의 예학시대가 전개되었다. 조선시대의 예학은 송대 성리학이 미진하게 남겨놓은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려는 의미가 짙다. 이는 주자와 그의 제자들이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은 예학을 완결함으로써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조선성리학이, 그것도 기호학파가 주도적으로 계승, 실현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함축한다.²⁴⁾

예치(禮治)란 왕도정치 실현의 구체적 내용으로 예(禮)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형태였다. 16세기에는 인간의 심성을 수양하는 심성론이 발달하여,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이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제기되는 등 수기(修己)에 치중하였는데, 17세기에 이르러 치인(治人)에 비중을 둔 실천윤리, 사회윤리로서 예론(禮論)이 발달하게 된 것은 성리학 연구의 심화로 볼 수 있다. 예론(禮論) 발달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정의에 대한 강렬한 추구이다. 17세기에 서인학계와 남인학계에서 대량 출간되는 예서(禮書)는 각기 상이한 예론(禮論)을 집대성한 축적으로 예치(禮治)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두 차례의 예송(禮訟)은 예론(禮論)이 정치 문제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²⁵⁾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예학은 1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호에서는 김장생이 『가례집람(家禮輯覽)』 10권 6책을 썼고, 영남에서는 정구(鄭逵)가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20권 7책을 썼으니 이것이 그 시발점이다. 김장생은 그밖에도 『전례문답(典禮問答)』, 『상례비요(喪禮備要)』, 『의례문해(疑禮問解)』를

23) 두 사람의 논쟁의 초점은 本然之性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었다. 李柬은 이 본연지성을 理一之理로 보아 人, 物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韓元震은 본연지성을 理氣妙合으로서의 氣質之性으로 보아 人, 物의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24) 이동인 등,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당, 2001, 62면.

25) 정옥자, 위의 책, 22면.

저술하였고, 이후 김집의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 유계와 윤선거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송시열의 『경례문답(經禮問答)』, 이유태의 『의례문답(疑禮問答)』, 윤증의 『의례문답(疑禮問答)』 등이 나왔다.

이와 같이 17세기 예학시대에 있어 충남지역 유학자들의 활약은 컸고, 실질적으로 예학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그것은 예학연구의 저술이나 강학의 면에서도 그렇고 예송의 경우 그 중심인물이 거의 충남의 유학자들이었다. 즉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그리고 이들에 맞서 견해를 달리했던 윤휴가 바로 충남의 유학자였다.

이렇게 볼 때, 충남유교문화는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17세기 예문화의 창출과 그 발전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5. 결어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유학사에 있어서 기호유학의 중심지요 율곡학과와 우계학과의 본거지였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계열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 조화하면서 새로운 유교문화의 창출을 모색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은 무엇보다 개방성과 다양성에 있다. 기호유학이 영남유학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데, 기호유학의 중심이 충남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충남유교문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리학, 인물성동이론, 양명학, 기학, 의리학, 실학, 예학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성리학만 하더라도 율곡직계의 계열은 율곡설의 계승에 주력하지만, 우계학과나 비사승 율곡계열의 경우에는 율곡설에 매이지 않고 퇴계설까지도 용납하는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성리학의 이론적 천착에만 매이지 않고 유학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내면적 수양을 중시하는 의리적 도학풍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유교문화의 이러한 다양한 전개는 기본적으로 자유분방한 개방적 학풍에서 가능하다. 율곡 자신이 그랬듯이 그 후학들에게서도 학문의 수용성,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우계학과나 비사승(非師承) 율곡계열의 경우 이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유교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禮) 문화의 창출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에 있다. 예학은 17세기 국가기강의 문란과 윤리강상의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16세기 성리학시대의 지나친 사변화(思辨化)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예학은 김장생, 김집 부자와 그의 문하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강학함으로써 한 시대의 학풍을 이루었다. 이는 ‘충청도 양반’이라든지 충청도가 예의 고장이라 부르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충남유교문화의 특징은 의리적 도학풍에 있다. 도학은 내면적 수기를 중시하고 사회적 정의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리적 실천을 포함한다.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의 순절이후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던 김정(金淨)의 죽음, 윤황(尹煌)의 척화외리, 송시열의 북벌외리, 송병선, 최익현, 김복한의 항일외리를 통해 충남유교문화의 의리적 전통

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충남유교문화의 위상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충남유교문화는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상을 갖는다. 충남지역은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심으로 한 율곡학파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昌寧 成門, 坡平 尹門으로 이어온 우계학파의 중심지였다. 아울러 윤휴, 권시 등 기호 남인계열이 또 한 축을 이루어 각축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따라서 충남유교문화는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한국유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하겠다.

또한 충남유교문화는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논쟁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유학사에서 성리학의 진일보를 이룩하였다. 16세기가 천인(天人)관계 속에서 인성(人性)의 내면문제를 주로 연구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철학적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이는 송시열의 문인인 권상하의 문하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중심인물이 충남출신인 한원진, 이간이었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비록 충북지방이었지만, 이 논쟁의 주역이 바로 충남유학자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유학사에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同異)’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200여 년간에 걸친 학술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성리학 나름의 특성과 성과를 거양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끝으로 충남유교문화는 17세기 예학시대에 있어 예문화의 창출에 주도적 위치에 있었고, 한국유학사에 있어 예학시대 전개의 중핵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유교문화는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 예문화의 창출과 이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 의리적 도학풍의 진작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충남유교문화는 한국유학사에서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특히 율곡학파와 우계학파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충남유교문화는 율곡학파(栗谷學派), 비사승율곡학파(非師承栗谷學派), 우계학파(牛溪學派), 도산학파(道山學派), 영남유학(嶺南儒學)이 이 지역에서 갈등, 대립하면서 다양한 유교문화를 꽃피웠는데, 구체적으로는 율곡성리학, 기학, 인물성동이론, 의리학, 양명학, 예학, 실학 등 다채로운 유교문화를 장식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예 문화 창출의 중심지였고, 200여 년에 걸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논쟁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正易>

<栗谷全書>

유명종, 절충파의 비조, <성우계사상연구논총>, 우계문화재단, 1991.

최완기, <한국성리학의 맥>, 느티나무, 1993.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1.

김용현, 율곡학의 비판적 계승, 낙학과,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배상현, 조선조 기호학파의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박사논문), 1991.

정옥자,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4.

윤사순, 조선 초기 성리학의 전개, <한국철학사>, 중, 동명사, 1987.

윤사순, 인성물성의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윤정중, <노종 5방파의 유서와 전통>, 선문인쇄사, 1999.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동인 등,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당, 2001.

황의동, 기호유학에 있어서 이기론의 특성과 전개, <국사관논총>, 제6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황의동, 충남유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남역사문화연구소, 2001.

황의동, 우계학의 전승과 그 학맥, <우계학보>, 21호, 우계문화재단, 2002.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1. 서론
2. 충남 유교문화의 역사적 개관
3.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태
4.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서론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곳곳한 선비문화의 본 고장인 충청남도에도 많은 전통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교문화자원은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온 충남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성리학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고, 내륙지역은 17세기 기호학파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 기라성 같은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따라서 충남은 다양한 유교관련 유형문화자원과 정신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관리 및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조 500여년 동안 축적되어 온 충남의 전통적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태를 검토하며, 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충남 유교문화의 역사적 개관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가 시대를 주도한 것은 고려말 성리학의 도입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말 충렬왕 이후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 우탁(禹倬), 권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부장

보(權溥)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安珦)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머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오면서 성리학 관계 서적을 다량 수입하여,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白頤正)이다. 백이정의 묘소는 보령군 웅천면 평리 양각산(羊角山)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 신안사(新安祠)와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성리학은 이제현(李齊賢), 이승인(李崇仁),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여말선초 유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사상적 수용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이제현(1278~1367)은 권보의 사위로 당시에 풍미했던 사장의 학문에 반대하고 주자의 실천적 학문을 주장하였다.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李穀, 1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韓山李氏)가문으로 이들은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이다. 선조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紆, 1466~1524)도 이색의 후손이다. 사육신 가운데 성삼문(1418~1456)과 박팽년(1417~1456)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김시습(1435~1493)은 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한국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특히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李之函)·서기(徐起)·홍가신(洪可臣) 등이 있다.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 그는 만년에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으나,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다.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는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조선후기 유학의 흐름은 크게 기호학과와 영남학과로 분류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학문은 그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퇴계학과, 율곡학과가 형성되었고, 나아가 조선 후기에는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의 중심이 되었다. 기호학과의 종장은 율곡 이이로 정치적으로는 주로 서인계(후의 노론·소론)와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는 영남학과가 아니라 기호학과였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기호학과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지방과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지방을 가리킨다. 그런데 기호학과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과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김장생·김집·송시열·권상하 등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며, 원래 송시열의 수제자였다가 후에 노·소분당이 이루어지면서 갈라선 명재·윤증도 충청도 출신이다.

율곡학과 내에서 인성과 물성이 같으나 다르냐를 놓고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湖洛論爭])이 일어났는데,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 봉암 채지홍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에 살았지만, 중심인물인 외암 이간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 또한 충청도 청풍 출신으로 공주와 연고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의 하나인 인물성동이논쟁은 충남의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인물성동이론에 끼지 않은 유명한 학자·정치인으로는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정소된 3대산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1573~1635, 신창사람으로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역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김홍욱(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면서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1595~1658),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남구만(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낸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채제공(1720~1799) 등이 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

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연가·회덕), 김집(연산), 조극선(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유성), 윤순거(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송기후(회덕), 이상(전의), 윤증(노성), 권상하(청풍), 이기홍(연풍) 등이다.

이외에도 신흘(1566~1628, 회덕), 윤휴(1617~1680, 공주우거), 김만중(1637~1692, 회덕), 이중환(1690~1752, 공주), 박문수(1691~1756, 천안), 임성주(1711~1788, 공주), 김정희(1786~1856, 예산), 김항(1826~1898, 연산), 최익현(1833~1906, 청양) 등이 충남(대전) 지역과 연고를 갖고 있다.

3.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태

1) 유교문화유적 조사실태

조선시대에 유학자를 다수 배출한 호서지역에는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은 고고유적이거나 백제유적에 비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고학 중심의 문화유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형의 유교문화재도 함께 조사되는 정도였다.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보고서로는 『충남지역의 문화유적』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이 있다.

먼저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충남지역은 백제문화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체계적인 문화유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충남대 백제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충남의 천원군·서천군(1982년), 보령군(1983년), 예산군(1984년), 연기군(1985년) 등 5개군에 걸쳐 광역의 유적조사를 실시하여 1986년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1집)』을 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공주대 박물관에서 부여·논산·아산·당진·천안·청양·예산·서천·보령·연기 등을 조사하여(1987년~1996년)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2집부터 제12집까지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유교유적이 한 분야로 취급되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공주 : 향교 및 서원 3건, 사우 6건, 정려 30건, 비 및 기타 5건

부여 : 향교 4건, 서원 6건, 사묘·영당 14건, 정려 37건 (비는 별도 조사 16건)

논산 : 향교 3건, 서원 8건, 사우 4건, 정려 26건, 비 6건, 기타 9건

아산 : 향교 3건, 서원 3건, 사우 3건, 정려 23건, 신도비 7건, 비 8건

당진 : 향교 2건, 사우 6건, 서원 1건, 정려 22건, 효열비 3건, 신도비 7건

천안 : 향교 3건, 사우 5건, 정려 30건, 금석문 12건(신도비, 비석군)

청양 : 향교 2건, 사우 5건, 정려 22건, 금석문 12건

예산 : 향교 3건, 사우 5건, 정려 34건, 신도비 9건, 비 11건

서천 : 향교 3건, 서원·사우·영당 9건, 정려 28건, 금석문(비) 10건

보령 : 43건(향교 3건, 서원·사우·사당 9건, 정려 22건, 신도비 8건, 효행비 1건)

연기 : 향교 2(2)건, 서원 및 사우·영당 14건, 정려 32건, 금석문 33건(신도비 13, 비석
군 20)

이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누정과 고택, 서당, 명현묘소 등은 유교유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전통건축이나 기타유적에 포함), 금석문(묘비, 신도비, 비석군 등)은 별도의 장이 설정되기도 하고, 유교유적에 포함되거나 기타유적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조사과정에 유교유적(문화) 연구의 전문가가 거의 참여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부분적으로 오류와 한계가 있다. 고고학 위주의 지표조사에, 유교유적에 대한 조사도 함께 개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98년부터는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전국 시·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충남의 경우 동산문화재 이외의 각종 문화유적의 수량이 천안시(1998년) 210건, 공주시(1998년) 468건, 보령시(1999년) 445건, 서산시(1998년) 497건, 논산시(1999년) 517건, 부여군(1998년) 455건, 서천군(2000년) 432건, 홍성군(2002년) 668건, 예산군(2001년) 447건, 태안군(2000년) 494건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은 현재(2003년도)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기군과 당진군은 아직 지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시·군의 유적 건수가 지표조사 담당기관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유교유적의 경우 천안시 74건, 공주시 72건, 보령시 57건, 서산시 83건, 논산시 145건, 부여군 98건, 서천군 96건, 홍성군 68건, 예산군 89건, 태안군 75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1990년부터 전문연구자에게 의뢰하여 분야별로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문화유적총람』으로 사찰편(1990), 성곽 관아편(1991), 금석문편 상·중·하(1993) 등을 발간하였으며, 이어 『금강지』 상·하(1993), 『계룡산지』(1994), 『도서지』 상·중·하(1997), 『충남의 향교』(1999), 『충남의 서원·사우』(1999) 등을 발간하였다. 이 중에서 금석문과 향교, 서원·사우 등은 유교문화유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사 및 집필이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종가, 서당, 정려, 누정, 전적 및 고문서 등의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지 못한 점이다.

2) 유교문화재 지정실태

문화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비중은 경북(1,503), 경남(1,061), 전남(907), 서울(874)에 이어 전국 5위의 수량으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고 있다. 2002년(1월) 현재 충남도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02점(국보 28, 보물 87, 사적 42, 사적 및 명승 1, 천연기념물 15, 중요 무형문화재 7, 중요민속자료 22), 도 지정문화재 325점(유형문화재 135, 기념물 143, 무형문화재 33, 민속자료 14), 그리고 도 지정의 문

화재자료 290점(유형문화재 243, 기념물 46, 민속자료 1) 등 도합 817점에 이르고 있다(충청남도 『문화재목록』 2002. 1. 참조).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충남지정 문화재의 24.7%(202건), 도 지정문화재가 39.8%(325건), 도 지정 문화재자료 35.5%(290건)로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충남의 경우 도합 615건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시·도별 지정문화재 통계에 나타난 충남의 지정문화재 특징 가운데 주목할 것은 ‘문화재자료’ 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문화재자료가 지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 1.5%(13/874), 경북 27.5%(413/1503), 경남 26.7%(283/1061), 전남 21.7%(197/907), 전북 22.6%(144/637), 경기 14.2%(98/692), 강원 24.5%(107/436), 충북 7.5%(35/465) 등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중 문화재자료의 비율이 전국 최고인 35.9% (291/811)에 달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충남의 유교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43점, 도 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도지정) 156점으로 모두 346점이다. 충남의 817점의 문화재 가운데 유교문화재는 346점에 달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202점 가운데 43점에 불과하고 대부분 도지정 문화재이다(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 156점). 특히 문화재자료 290점 가운데 유교분야의 문화재가 156점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충남의 유교문화재 지정현황

	가					
	3	1	6	·	11	21
	2	13	8	2	17	42
	·	4	3	·	10	17
	11	2	5	3	9	30
	2	4	3	·	8	17
	5	14	6	2	21	48
	·	1	·	·	4	5
	2	1	3	·	13	19
	·	1	2	·	7	10
	4	9	8	1	21	43
	1	1	5	·	4	11
	1	2	2	·	4	9
	4	1	6	2	10	23
	7	7	9	·	12	35
	·	2	2	1	1	6
	1	1	4	·	4	10
	43	64	72	11	156	346

이들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논산시(48), 부여군(43), 공주시(42), 예산군(35), 아산시(30), 홍성군(23), 천안시(21), 금산군(19), 보령시(17), 서산시(17), 서천군(11), 연기군(10), 당진군(10), 청양군(9), 태안군(6), 계룡시(5)의 순서이다. 지정된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는 논산,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지정문화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부여, 공주지역 문화재의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유교문화재의 경우에는 논산지역이 가장 많고, 아산·예산 지역도 주목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산에 많은데, 이는 이충무공 관련 유적·유물과 외암리를 중심으로 한 고택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교유적은 주로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 시·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

문화재청의 중앙 문화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6개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분과는 건조물 문화재·민속가옥, 제2분과는 동산문화재, 제3분과는 사적, 제4분과는 무형문화재, 제5분과는 명승 천연기념물, 제6분과는 매장문화재를 담당하며, 특별 분과로 박물관분과가 있다. 각 분과별 인원구성은 10인 전후의 위원과 20인 전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문화재위원회도 문화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 분야별 구성이 필수적이다. 지정문화재가 1,500여건이 넘는 경상북도의 경우 문화재 위원 40인, 전문위원 5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4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재 위원은 모두 20인, 전문위원은 27인이다. 전공영역별 구성을 보면 유교문화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사 및 서지학분야가 경북은 17인(위원 7인, 전문위원 10인), 전남은 8인(위원 4인, 전문위원 4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남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면(2001.3.10 개정), 도 문화재 위원회는 2~3개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8조). 종전에는 10인 내외의 위원과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이루어져 분과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형식에 그쳤으나, 다행히 2003년 7월에 문화재 위원 18인, 전문위원 25인을 위촉하여 2개분과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교문화재를 담당할 전문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실 도문화재위원회가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다루고 있으므로, 충남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서 유교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전공영역별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존 유교문화자원의 문화재 지정은 건물중심으로 지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존 건물의 문화재 지정시 그 건물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건축사적인 의미만 논의되어 왔다. 유교문화자원은 유형의 문화재라도 그곳에 담겨있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교서원의 경우, 건축연대와 중수연대, 건축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거쳐간 인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문화재 지정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소홀하였다. 이는 유교문화재의 지정 시, 유교문화나 조선시대 역사 전공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데에서도 기인한다. 한말이나 일제강점기의 근대 문화재 지정에는 건축이나 문서 자체보다도 오히려 관련인물의 정신문화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3) 유교문화재 관리실태

유교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지정내용, 입지조건, 소유주의 조건, 거주유무 등에 따라 관리 조건과 체계가 다르다. 현재 지방에 소재한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현재 지정된 목조문화재(건축물) 중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원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43호인 김정희선생고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충남지역의 유형문화재는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소유주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교문화재의 소유권은 크게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 소유주가 (종교)단체인 경우,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로 나뉘어 진다.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를 위한 부속건물을 만들어 원형 훼손을 막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정희 선생고택이 이에 해당한다. 소유주가 향교·서원과 같이 유림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유림(또는 유도회)에서 관리를 하며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고택과 정려, 재실, 사당과 같이 문중에서 소유한 문화재는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이다. 관리는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고택은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원형을 보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당인 경우 조상숭배의 관습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고택의 경우 현대적인 문화생활이 원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당의 경우에도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모습을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개인소유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보수 및 수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를 보자.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는 모두 33,642,449,000원으로 이는 충남의 문화재사업비 총액(223,898,256,000원)의 15%에 불과하다. 지정문화재만 비교해 보면, 유교문화재의 비중이 42%에 달하는 점에 비하면, 사업비가 적은 편이다.

이들 유교문화재 사업비의 연도별 추이는 1990년까지는 대체로 10억원 이하였으나, 1997년 39억원, 1998년 44억원, 1999년 37억원, 2000년 35억원이었다. 그런데 2001년은 다시 2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교문화재만의 상황이 아니고, 문화재 전체 보수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교문화재 사업비를 유적별로 비교해 보면, 향교 28.67%, 서원·사우 32.53% 등으로, 60% 이상이 향교와 서원의 보수에 투자되고 있다.

4) 고문서·전적의 조사·수집 실태

유교문화재 가운데에는 건조물과 같은 부동산문화재만이 아니라, 서적·문서·회화 등 동산문화재도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도 문화재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재가 보수사업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형의 문화재에는 부동산문화재와 동산문화재가 있다. 그런데 동산문화재는 제대로 된 조사와 현황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당장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동산 문화재 특히 인멸되기 쉬운 고문서·전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방 역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사업은 대부분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조사·수집 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으로 약칭)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문서와 고서의 조사·수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93년부터는 교육부지원 국학진흥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7월까지 조사 수집된 내용을 보면, 고문서 64만 8,253점, 고서 51만 3,305책에 달한다.

그 동안 정문연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수집해간 자료는 1984년에 고문서 4,746점, 1997년에 고문서 1,864점과 고서 1,034책, 1998년에 고문서 8,479점과 고서 322책, 1999년에 고문서 2,278점과 고서 204책, 2000년에 고문서 305점, 합계 고문서 17,672점과 고서 1,560책이다. 이를 소장처별로 살펴보면, 서산의 경주김씨(고문서 422점), 논산의 파평윤씨(고문서 4,261점), 논산의 노강서원(고문서 63점), 청양의 연일정씨(고서 64책), 공주의 대구서씨(고서 29책), 대전의 김영한 소장자료(고문서 8,284점, 고서 941책), 부여의 함양박씨(고문서 1,886점), 예산의 한산이씨(고문서 2,451점, 고서 526책), 청양의 단양우씨(고문서 305점)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으로 약칭)에서도 1987년부터 지방사료의 조사수집작업을 실시하였다. 국편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방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국편에서 행한 국내 사료 수집·정리현황은 고서 3,042책 162,912면, 성책류 고문서 1,257건 35,144면, 낱장 고문서 12,058건 23,885면에 이른다. 그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조사·수집해 간 현황을 보면, 1989년에 고문서 186점과 고서 123책, 1996년에 고문서 49점과 고서 51책, 1997년에 고문서 265점과 고서 187책, 1999년에 고문서 77점, 2001년에 고문서 236점 등 모두 고문서 813점과 고서 361책을 조사·수집해 갔다. 이와 같은 실적은 국편의 전체 수집량이나 다른 시·도의 수집량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문연과 국편의 지방사료수집은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의 자료는 자료소장자와의 협의하에 기증이나 기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자료가 정문연이나 국편에 기증될 경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원자료의 도난이나 분실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지역자료(문화재)가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지방문화의 입장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중앙에서 지방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사업은 거의 없이, 일부 향

토사가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지방사료가 조사·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에는 충남도정사료실에 충남도정과 관련된 고문서 및 서책이 수집되어 있다. 2002년 현재 고문서 671점, 고책자 569권, 사진 274점, 문집 183권, 실물 209점, 탁본 29점, 지도 25점, 도안 29점, 행정장비 102점, 서류철 110점, 관광그림엽서 24점, 개도 100년 자료 19점, 합계 2,344점이 수집·관리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개인(김영한·서봉식)의 헌신적인 열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외에도 몇몇 기초자치단체나 문화원, 사설 박물관 등에서 향토사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진열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4.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

1) 유교문화자원 활용의 배경

그 동안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교문화재의 경우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교문화공간의 활용은 관련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고려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교문화재의 경우, 부동산문화재만이 아니라, 서적·문서·회화 등 동산문화재도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다. 무형문화재는 의식, 가치지향, 사상체계 등과 직접 관련되므로 유교문화를 조사·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형의 유교문화재를 정비하거나 복원·재현할 경우, 유교의 무형문화재는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유형의 유교문화공간은 단순히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보다는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유교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유교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향교와 서원 등에서 있었던 유교의례와 교육은 이제 그 명맥조차 잇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전제와 봉심에서조차도 의례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원래 정려는 일반인에게 훌륭한 행실을 기리고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본래의 기능을 고려한 적극

적인 관리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유적 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등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시·공연 확대, 고궁의 궁중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문화재 야간조명 등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외국인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경쟁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중복 투자되거나 재원대책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은 공주·부여의 백제고도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백제문화와 함께,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본고장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지역은 고려말 성리학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예학의 중심지였다. 한국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특히 17세기 이후 세계문화상에서 유래가 없는 예학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예학발달에 큰 역할을 한 주역들이 충청인들이다. 한국의 예문화를 중흥 발전시킨 이는 예학의 종장으로 평가되는 김장생이다. 김장생은 상례를 정리하여 한국 민간 예서의 효시가 된 『상례비요』와 가정의례의 이론서 『가례집람』을 지었다. 그후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17-18세기 한국의 학문계와 정치계를 주도했던 대학자, 대정치가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예학자로 이름 난 이는 김집,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주, 대전, 논산 등에서 살았던 충청인들이다. 그들은 각종 의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에 지나지 않던 예학을 학술적 연구로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무의식적인 가례 준행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문화했다. 또한 이 지역은 산림세력이 강했던 곳이다. 조선 후기 산림은 한 지역 사대부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 사림의 천거권까지 보유하여 국정의 방향과 운영, 특정 봉당이나 정파의 성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 충남지역에는 대학이 많이 설립되었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을 중부권의 주요한 대학문화와 연계 가능한 지역이 많다. 유교문화 체험 관광 만이 아니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유교문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항일 문화의 중심지인 독립기념관의 소재지라는 특성과 연결하여 ‘충’ 문화의 중심지로서 특성을 찾아 갈 필요도 있다. 나아가 인접한 대전광역시 및 천안시 등 중부의 인구밀집지역이 함께 병행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중심, 자모중심, 초등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2) 유형별 현황과 활용방안

대체로 유교문화자원들은 정적이며, 교육적이고 지루해서 재 방문율이 적은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특정 인물,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개념이 강조된 데 따른 부정적 인식일 뿐, 실제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면 발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활용을 전제로 할 때, 유교문화자원(공간)은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관련 문화자원, 제례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자원, 교유관련 문화자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육관련 문화자원

전통시대의 유교문화 교육기관으로는 향교와 서원·서당 등이 있다. 향교는 조선시대 일읍 일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을에 세워진 관학기관으로, 충남에는 36개소의 향교가 현존한다. 이들의 시·군별 분포는 부여군에 4개, 보령시·아산시·서천군·논산시·천안시·예산군에 3개, 금산군·서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당진군에 2개, 공주시와 태안군에 1개의 향교가 현존하고 있다. 충남의 36개 향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고, 모두 도지정문화재이다. 공주향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오천향교를 제외한 34개 향교는 도지정 기념물, 오천향교 대성전은 도지정 문화재자료이다. 서원·사우 가운데 연산 돈암서원은 국가지정 사적에 해당하고, 논산의 노강서원·부여의 홍학당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충현서원 유적, 고간원지, 충곡서원지, 노성궐리사, 창열사 등은 도지정 기념물이며, 그 외 34건이 문화재자료(도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논산의 돈암서원과 노강서원, 부여의 창열사 등은 대원군의 서원정리 때 훼손되지 않았던 47개의 서원에 속한다.

이들 향교 서원은 오늘날에도 그 기능을 살려 사회교육기관화가 가능하다.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의 공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단힌 문화형식에서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교육 공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학교교육·제도교육과의 차별성, 문화자본 개념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일반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화 등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으로는 예절교육, 동양고전교육, 다양한 형태의 서당교육, 유교문화 특별강좌 등을 행하고, 나아가 향교·서원 공간에서 관례행사, 전통 혼례 및 수연 행사, 백일장 행사, 향교석전제와 봉심외 일반인 참여 유도, 강학례 행사의 이벤트화, 향례 행사의 이벤트화, 선비문화제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향교·서원이 성현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공간이지만, 지나치게 엄숙함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활용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오늘날처럼 전통문화의 산실인 향교·서원을 21세기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향교·서원이 존재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신세대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눈높이 교육, 눈높이 이벤트가 필요하다.

향교는 과거 읍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기에 오늘날에도 도심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주말이나 저녁에 도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쉽

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향교의 명륜당에서 국악공연이나 현악4중주와 같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는 주말에 대웅전 앞뜰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 이는 향교·서원의 활용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2) 제례관련 문화자원

유교문화에서 다루는 의례는 관혼상제로 대표된다. 이 중에서도 제례에 대한 격식과 관심은 각별한 것이다. 제례를 행하는 시설로는 수도(한양)의 종묘, 성균관 또는 향교의 문묘 그리고 민가의 사당 및 재실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묘를 건립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율한 때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양반계급의 고택에는 대부분 사묘가 있었던 것이 상례이다.

제례관련 문화재로는 사당, 영당(영정), 재실, 명현묘소와 묘비(신도비) 등을 들 수 있다. 충남의 제례관련 지정문화재로는 박문수 영정(보물), 이색영정(보물), 계룡산 중약단(보물), 이충무공 묘(사적), 칠백의총(사적), 홍주의사총(사적)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로 11건(연평부원군 신도비, 보령유격장군창덕비, 서산김두징묘비, 익성군신도비 및 묘비, 김계휘신도비, 김시습영정, 부여김동효영정, 채제공선생영정, 청양 영모재, 전운상영정, 정일상영정 및 한유도 등), 기념물로 16건(신자경선생묘, 홍대용선생묘, 송선군묘, 영규대사묘, 김종서장군묘, 계룡산초혼각지, 김좌진장군묘, 김옥균선생유허(묘), 김장생선생묘소일원, 전득우묘, 이색선생묘일원, 이광윤묘, 최익현선생묘, 남연군의묘, 도응선생묘 일원, 남이흥장군묘 등), 문화재자료로 58건이 있다. 충남의 고택 가운데에는 11건의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 4건의 유형문화재, 1건의 기념물, 10건의 민속자료, 9건의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제례관련 문화공간에서는 조상숭배 생활체험으로 조상제례 및 접빈객 의례 재현, 진설도 실습 및 제향의례 재현, 다담상 재현, 불천위제사 재현, 세일사(시제) 제향 교육 및 재현 등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재실은 주변의 고택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체험교육을 위한 민박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윤리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재로는 충효열 정려, 충효열 관련 문서, 기타 충효열 관련 시설물을 들 수 있다. 충남에서는 유관순열사 유적과 매현 윤봉길의사 사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남군 이광악 선무공신교서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로 공주소학리 효자향덕비, 고정리 양천허씨 정려, 연기군의 효교비, 화순옹주 홍문, 예산 이성만형제 효제비가 있으며, 기념물로 금산 이치대첩비가 있고, 그 외 문화재자료로 15건이 있다. 충효열 정려와 같은 윤리관련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격전지 등 역사적 장소에서는 충효정신교육, 체험교

육 등 청소년 수련이 가능하고, 충·효·열 정려는 효체험행사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교유관련 문화자원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유시설로는 누정이 있다. 정(누)각은 교류 및 강학의 장이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기도 하다. 교유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개인이 설치하기도 하며 그 활용 또한 마을공동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교유관련 시설 가운데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한건도 없고, 도지정 문화재로 공북루, 여민루, 임이정, 팔괘정, 종학당(정수루, 숙사), 경이정, 목애당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14건의 문화재 자료가 있다. 교유시설은 대부분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3) 연계관광 자원화

유교 관련 공간과 행사를 연계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체험 및 학습시간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광자원 다원화수요 팽창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유교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경우, 지역별·주제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상생·특화시키고, 건물과 문화재 외에 다양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강하며, 유형별·주제별 체험과 탐방코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는 개별 유적으로서 향교와 서원 등 유교자원은 지역별로 분산적이고, 다양하며 계열성도 희박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과 메리트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를 선정 집중 육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① 다양한 다른 자원들과의 경쟁력을 고려한 특화, ② 충절인물, 학맥, 교육과 강학, 저술 관련 유적·유물 연계, ③ 전통가옥과 의례, 민속마을, 동족마을 연계, ④ 묘소, 풍수, 취락경관 연계, ⑤ 일반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단순 연계하는 방안만이 아니라 광역문화권의 정신사, 지성사를 배태한 기반으로 부각하여 연계하는 방안, ⑥ 광역문화권의 문화 특징 중 특정분야(학술, 교육, 인물 등) 자원으로 부각하여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 건물·문화재라는 단편적 의식을 탈피하고, 정신사·문화사라는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자원화해야 한다.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향교·서원의 교육과정도 사실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제례와 의례도 정치·사회활동의 측면에서 제례만이 아닌 생활의례로서 향약·향음주례·향회 등의 자료를 찾아 재생해야 한다. 인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도 높은 벼슬이나 행적도 좋지만, 사상·저술·전설·일화, 특히 각 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향약과 소학·사창문제, 향안·향규·유향소와 관련되는 지역세력의 결집과 갈등문제, 의병·구국활동 양상, 그리고 당파와 학맥문제 등이 정리되어야 하며, 건축물 이외의 고문서나 전적, 금석문, 지명, 전설 일화까지

확대하고, 제례와 혼례에 한정된 의례들도 향약례나 향음주례·향사례, 동계 동약 의례, 향회, 문중회의 등으로 넓히고, 종가의 음식이나 종부의 삶, 동족촌락의 공동체 문화 등이 어우러진 종합문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코스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논산시 연산면 일원과 노성면 일원, 아산-예산 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코스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산의 유교문화와 황산벌

- 답사 코스 : 황산벌 - 계백장군묘역 - 충곡서원 - 돈암서원 - 고정리 광산김씨 종가 (양천허씨 정려, 광산김씨 종가재실 등) - 사계묘역(신도비, 묘역, 재실, 부조묘 등) - 개태사
- 특 징
 - 돈암서원 숙박 및 교육·학술 활동과의 연계 가능
 - 고정리 일원에 다수 분포하는 재실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가능
 - 돈암서원, 고정리, 사계묘역 등은 도보답사가 가능한 3~4km 구간에 밀집하고 있는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노성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2) 노성의 선비문화 체험

- 답사 코스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윤황고택, 사당, 묘역) - 병사리 유적(파평윤씨 종학당, 병사묘역 및 재실, 유봉영당) - 교촌리 유적(궐리사, 윤증고택, 노성향교)
- 특징
 - 가까운 거리에 관련 유적이 밀집한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교통이 불편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천안-)공주-논산 간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방객의 점증이 예상됨
 - 병사리 재실 등을 이용한 숙박이 가능하며, 교육·학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함
 - 종학당의 전통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유지·존속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개방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킨 살아 있는 전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가능함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연산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3) 근대도시 강경과 선비문화

- 답사 코스 : 강경포구와 나루 - 죽림서원과 임이정·팔괘정 - 강경읍내의 근대 건축물

○ 특징

- 근대문화의 중심지에 형성되어 있는 선비문화의 모습
- 사제동행의 상징으로 활용할 경우, 청소년 교육의 장이 가능
- 선비문화와 근대문화, 나아가 젓갈시장과의 연계 가능

(4) 아산시 남서부-예산시 북동부 일원

○ 답사 코스

: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맹씨행단·외암민속마을 -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방산리 - 신암면 추사 관련 유적

○ 특 징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과 관련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 (추사 김정희, 고불 맹사성)
-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 많음 (외암민속마을, 상항·방산)
-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의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음 (외암민속마을, 추사고택 등)

(5) 대전 - 강경간 답사코스

○ 답사코스 : 대전 자양동 우암사적공원(남간정사, 기국정, 우암고택 등) - 송촌동 동춘당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충현서원, 고청묘소, 공암굴) - 동학사(숙모전) - 논산시 연산면 - 논산시 강경읍

○ 특 징

- 호서 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서인-노론 학맥의 적통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관련 유적을 볼 수 있는 답사코스임
- 특히 정통론에 입각한 노론계의 사상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한, 노론계 주도 정국에서 존숭되었던 삼은(三隱)·최영·김종서·사육신 등의 인물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적인 충절로 숭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주도 인물들은 망국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왜곡, 평가절하되고 있음)
- 대전시의 우암과 동춘당 관련 유적은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큼.

5.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지역은 조선시대 한국유교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려말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白頤正)이었으며,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한산의 이곡·이색 부자를 꼽을 수 있다. 조선초기 사육신 가운데에는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이 이곳과 연고가 있으며, ‘조선왕조 500년 충의의 표상’ 김종서도 충남(공주)에서 태어나 충남에 묻혔다. 16세기 이지함·서기·홍가신 등은 화담 서경덕 계열의 인물이었지만, 17

세기 충남지역은 율곡 이이의 학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17세기 이후 3세기간 중앙정치와 성리학계를 주도한 인물은 대부분이 호서(충남) 출신이었다. 충남에서는 기호(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을 다수 배출하였으며, 인물성동이론을 주도한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도 충남출신이었다. 또한 17세기 산림(山林)도 38명 중 17명이 충청도출신이었다. 따라서 충남에는 유무형의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충남의 지정문화재 817점[국가지정 문화재 202점, 도 지정문화재 325점, 문화재자료(도 지정) 290점] 가운데 유교문화재는 346점[국가지정 문화재 43점, 도 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 156점]에 달한다. 지정된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는 논산,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교유적은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논산을 중심으로 한 호서의 내륙지방에 유교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은 가치에 비해 아직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교문화재의 문화재 지정에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유교문화재는 유형문화재만이 아니라,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정신문화자원도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유교문화재의 도지정문화재 지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미흡하며(고고학, 미술사 중심), 건축사 중심의 지정이 이루어졌다. 유교문화재의 지정에는 고문서, 문적 등 관련 문헌자료 검토와 함께 정신문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 20여년간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의 15%가 유교문화재에 사용되었다. 특히 향교·서원의 보수에 60% 이상 투자되었다. 투자된 비용에 비해 유교문화공간의 활용가치는 낮은 편이다. 이제 건물보수 중심의 관리실태를 지양하고, 유교문화자원 가운데 고문서·전적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향교와 서원 등 유형의 유교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유교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

이제 문화재정책은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시기이다.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교문화재(자원)는 그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현대적 활용이 가능하다.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충남 유교문화의 특장을 최대한 살린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은 교육관련 문화자원, 제례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자원, 교유관련 문화자원 등 유형별로 본래의 기능을 살린 활용을 도모함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계관광 자원화, 유교문화유적지 답사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교문화자원의 핵심분야인 향교·서원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특성 조사와 연구를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끝으로 호서 유교문화의 핵심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내륙지역을 기호유교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개발하기를 제언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서지역은 기호학파의 중심

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호서지역은 그 동안 영·호남에 비해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욱 많은 유교문화자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향교·서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충남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조선시대 지방 관학교육의 중심지였던 향교가 호서지역(충청남·북도, 대전)에 56개소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향교 전체(234개)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서지역의 면적이 전국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교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면적이 전국의 8%에 불과한데, 현존 향교수는 36개소(전국대비 15%)에 달하여, 향교의 밀집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또한 조선시대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사우의 건립현황을 보면, 충청도에는 모두 118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9개소였다.

특히 호서의 유교문화자원은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대전·공주·부여·금산·보은 등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집중개발이 가능하다. 충청도의 내륙지역인 논산, 대전, 보은, 금산 등은 17세기 기호학파의 핵심적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예컨대 서원·사우의 경우 논산·금산·부여 등에 각각 11개소(도합 36개소)나 있는데, 특히 논산에는 대원군의 서원정리시 훼손되지 않았던 서원이 2개소나 있다. 돈암서원은 조선후기 서인(노론)의 중심서원이었으며, 노강서원은 소론의 중심서원으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을 기호지역 유교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을 실시한다면, 문화적인 잠재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부록

<표 1> 지정문화재 통계 시·도별 대비(2002년 8월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해제	총계
(국가 지정문화재)																				
국 보	121	3	3	1	2	0	2	41	8	10	27	7	17	52	9	0	0	303	1	304
보 물	369	13	27	21	7	2	5	147	53	48	86	88	119	250	92	1	1	1330	15	1345
사 적	65	4	4	17	2	1	4	55	9	16	42	31	35	94	44	0	0	428	13	441
사적 및 명승	0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9	0	9
명 승	0	0	0	1	0	0	0	0	1	0	0	0	3	1	1	0	0	7	2	9
천연 기념물	11	7	1	10	0	0	2	13	27	23	15	26	43	57	34	30	30	330	102	432
중요 무형문화재	35	3	0	4	1	0	0	5	1	2	4	2	13	6	11	17	17	108	7	115
보유자	63	19	1	12	5	0	0	23	6	3	12	10	24	11	29	0	0	223	143	366
중요 민속자료	48	0	4	0	3	0	1	8	11	21	20	13	32	59	11	0	0	239	4	243
소 계	649	30	39	54	15	3	14	269	110	121	195	167	265	522	203	48	48	2754	144	2898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 유형문화재	138	48	41	35	26	28	11	137	133	187	135	175	214	298	326	17	0	1949	199	2148
시·도 무형문화재	27	10	14	8	13	10	1	31	8	9	33	20	26	25	18	13	0	266	32	298
시·도 기념물	20	45	11	47	26	38	37	148	74	101	143	98	172	125	211	52	0	1348	168	1516
시·도 민속자료	27	1	4	2	7	2	0	9	4	12	14	33	33	120	20	8	0	296	15	311
소 계	212	104	70	92	72	78	49	325	219	309	325	326	445	568	575	90	0	3859	414	4273
문화재 자료	13	9	33	17	25	41	17	98	107	35	291	144	197	413	283	2	0	1725	168	1897
합 계	874	143	142	163	112	122	80	692	436	465	811	637	907	1503	1061	142	48	8338	726	9064

<표 2> 충남의 향교 현황

시·군	향교명	위 치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천안시(3)	稷山鄕校	직산면 군서리 164-1 (향교골)	도지정기념물 109호(97.12.23)
	木川鄕校	목천면 교촌리 124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08호(97.12.23)
	天安鄕校	유량동 190-2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0호(97.12.23)
공주시(1)	公州鄕校	교동 184	도지정유형문화재 75호(78.3.31)
보령시(3)	保寧鄕校	주포면 보령리 47-1	도지정기념물 112호(97.12.23)
	藍浦鄕校	남포면 옥동리 9	도지정기념물 111호(97.12.23)
	鰲川鄕校	오천면 교성리 166	도지정문화재자료 137호(84.5.17)
아산시(3)	牙山鄕校	영인면 아산리 642 (향교골)	도지정기념물 114호(97.12.23)
	新昌鄕校	신창면 읍내리 320-1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3호(97.12.23)
	溫陽鄕校	읍내동 209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5호(97.12.23)
서산시(2)	海美鄕校	해미읍 오학리 226	도지정기념물 117호(97.12.23)
	瑞山鄕校	동문동 655	도지정기념물 116호(97.12.23)
논산시(3)	魯城鄕校	노성면 교촌리 237	도지정기념물 118호(97.12.23)
	恩津鄕校	은진면 교촌리 77	도지정기념물 120호(97.12.23)
	連山鄕校	연산면 관동리 437	도지정기념물 119호(97.12.23)
금산군(2)	珍山鄕校	진산면 교촌리 355	도지정기념물 122호(97.12.23)
	錦山鄕校	금산읍 상리 4 (비호산 아래)	도지정기념물 121호(97.12.23)
연기군(2)	燕岐鄕校	남면 연기리 33	도지정기념물 123호(97.12.23)
	全義鄕校	전의면 읍내리 149-1	도지정기념물 124호(97.12.23)
부여군(4)	林川鄕校	임천면 군사리 213	도지정기념물 127호(97.12.23)
	鴻山鄕校	홍산면 교원리 233	도지정기념물 128호(97.12.23)
	扶餘鄕校	부여읍 동남리 445-1	도지정기념물 125호(97.12.23)
	石城鄕校	석성면 석성리 647	도지정기념물 126호(97.12.23)
서천군(3)	韓山鄕校	한산면 지현리 389	도지정기념물 131호(97.12.23)
	庇仁鄕校	비인면 성내리 4구 169(교촌마을)	도지정기념물 129호(97.12.23)
	舒川鄕校	서천읍 군사리 315	도지정기념물 130호(97.12.23)
청양군(2)	靑陽鄕校	청양읍 교월리 34-1	도지정기념물 133호(97.12.23)
	定山鄕校	정산면 서정리 516-2	도지정기념물 132호(97.12.23)
홍성군(2)	結城鄕校	결성면 읍내리 586 (교촌골)	도지정기념물 134호(97.12.23)
	洪州鄕校	홍성읍 대교리 교동	도지정기념물 135호(97.12.23)
예산군(3)	禮山鄕校	예산읍 향천리 132-1	도지정기념물 138호(97.12.23)
	大興鄕校	대흥면 교촌리 538	도지정기념물 136호(97.12.23)
	德山鄕校	덕산면 사동리	도지정기념물 137호(97.12.23)
태안군(1)	泰安鄕校	태안읍 동문리 725	도지정기념물 139호(97.12.23)
당진군(2)	唐津鄕校	당진읍 읍내리 215-1	도지정기념물 140호(97.12.23)
	沔川鄕校	면천면 성하리 513	도지정기념물 141호(97.12.23)

<표 3> 충남의 서원·사우 현황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천안시 (3)	道東書院(址)	병천면 병천리	竹林書院	인조기축	1676	
	兩賢祠	풍세면 삼태리				
	六賢祠	풍세면 풍서리				
공주시 (6)	忠賢書院	반포면 공암리	孔巖書院	1581	1624	忠賢書院遺蹟:기념물 46 (84.7.26.) 忠賢書院:문화재자료 60 (84.5.17.)
	肅慕殿 (東鷄祠,三隱閣)	번포면 학봉리		936동계사 1394삼은각 1456초혼단		鷄龍山招魂閣址:기념물 18 (77.7.4.) 三隱閣:문화재자료 59 (84.5.17.) 肅慕殿:문화재자료 67 (84.5.17.)
	德泉君 祠宇	의당면 태산리		1739 이건		문화재자료 61 (84.5.17.)
	甲寺 表忠院	계룡면 중장리		1738(?)		문화재자료 52 (84.5.17.)
	尹烱祠宇	계룡면 유평리		?		忠憲公尹烱祠宇:문화재 자료 283 (86.11.19.)
	忠節祠	금홍동 사송정마을	鳴灘書院	1851 이건	1585(?)	문화재자료 20 (84.5.17.)
보령시 (3)	花巖書院	청라면 장산리		1610	1686	문화재자료 138 (84.5.17.)
	光城府院君祠宇	청소면 재정리		?		문화재자료 143 (84.5.17.)
	水弦祠	미산면 용수리		1921		문화재자료 142 (84.5.17.)
아산시 (5)	金谷書院(址)	배방면 중리		1837		
	道山書院(址)	도고면 도산리	道峯書院	1670		
	仁山書院(址)	염치면 서원리	五賢書院	1610		
	靜退書院(址)	배방면 중리		1634		
	顯忠祠	염치면 백암리		1706	1707	牙山李忠武公遺墟:사적 155 (67.3.18.)
서산시 (5)	聖巖書院	읍내동		1719	1721	문화재자료 205 (84.5.17.)
	松谷祠(松谷書院)	인지면 애정리	仁政書院	1694(?)		문화재자료 207 (84.5.17.)
	富城祠	지곡면 산성리		선조대		문화재자료 199 (84.5.17.)
	崇德祠	부석면 강당리		1864		문화재자료 352
	振忠祠(鄭忠信祠堂)	지곡면 대오리		1897		문화재자료 206 (84.5.17.)
논산시 (11)	龜山書院	연산면 오산리	龜巖書院	1700		
	金谷書院	연무읍 금곡리	金谷祠宇	1687		문화재자료 78 (84.5.17.)
	魯岡書院	광석면 오강리		1675	1682	유형문화재 30 (74.8.31.)
	遯巖書院	연산면 임리		1634	1659	사적 383 (93.10.18.)
	鳳谷書院	연무읍 고내리	鳳谷壇所	1712		시 향토유적 15
	竹林書院	강경읍 황산리	黃山書院	1626	1665	문화재자료 75 (85.12.31.)
	忠谷書院	부적면 충곡리	八賢書院	1692(확인)		기념물 12 (76.10.4.)
	杏林書院	가야곡면 육곡리		1867		문화재자료 76 (84.5.17.)
	孝巖書院	가야곡면 산노리	葛山祠	1713		문화재자료 87 (84.5.17.)
	休亭書院	부적면 신평리		1699		시 향토유적 16
	闕里祠	노성면 교촌리	春秋祠	1716		기념물 20 (78.12.30.)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금산군 (11)	礎溪書院(址)	금성면 하류리	草廬書院	1632		
	山泉齋書院(址)	남일면 은대리	山泉齋	1663		
	星谷書院(址)	남이면 성곡리		1613	1663	
	龍江書院	제원면 용화리		1716		문화재자료 19 (96.2.27.)
	龜巖祠	부리면 평촌리		1883		문화재자료 301 (88.8.30.)
	德山祠	부리면 불이리		1962		문화재자료 281(85.12.31.)
	柳谷祠	금성면 하류리	鄉祠宇	1664	1702	
	表忠祠	복수면 곡남리	趙憲祠堂	1649		문화재자료 20 (96.2.27.)
	從容祠	금성면 의총리		1647	1663	七百義塚：사적 105
	淸風祠	부리면 불이리	不二影堂	1672		문화재자료 16 (96.2.27.)
	忠烈祠	금성면 상가리		1831		문화재자료 17 (96.2.27.)
연기군 (4)	雷巖鄉祠(址)	전의면 관정리	雷巖書院	1699		
	鳳巖書院(址)	서면 봉암리	면암서원	1651	1665	
	合湖書院	동면 합강리		1716		문화재자료 41 (97.12.23.)
	文節祠(梅竹軒祠宇)	금남면 달전리		1967		문화재자료 40 (97.12.23.)
부여군 (11)	良谷書院	임천면 교원리	良谷書院	1740		
	東谷書院	세도면 동사리		1928		문화재자료 92 (84.5.17.)
	退修書院	임천면 만사리	繚山書院	1757		문화재자료 91 (84.5.17.)
	蓬湖書院	석성면	蓮湖書院			
	浮山書院	구암면 진변리		1719	1719	
	滄江書院	부여읍 저석리		1629	1696	문화재자료 107 (84.5.17.)
	七山書院	임천면 칠산리				문화재자료 102 (84.5.17.)
	三忠祠	부여읍 관북리				문화재자료 115 (84.5.17.)
	義烈祠	부여읍 동남리	顯義祠	1575	1578	문화재자료 114 (84.5.17.)
	彰烈祠	구룡면 금사리	彰烈書院	1717	1721	기념물 22 (79.12.19.)
	淸逸祠	홍산면 교원리	淸逸書院	1621		문화재자료 93 (84.5.17.)
서천군 (5)	建巖書院(址)	문산면 지원리	鳴谷書院	1662창건 1709이건	1733	
	文獻書院	기산면 영모리		1594	1611	문화재자료 125(97.12.23.)
	劍山祠	비인면 구북리				
	栗里祠	비인면 읍리	栗世德祠	1900		문화재자료 303 (88.8.30.)
	淸節祠	비인면 남당리	淸節鄉祠	1710		
청양군 (3)	龍溪書院(址)	남양면 대봉리		1716	1724	
	慕德祠	목면 송암리		1914		문화재자료 152 (84.5.17.)
	表節祠	운곡면 모곡리		1959		문화재자료 154 (84.5.17.)
홍성군 (2)	魯恩書院(址)	홍북면 노은리	綠雲書院	1675	1712	
	惠學書院(址)	대교리 교동(?)		1706	1722	
예산군 (5)	德岑書院(址)	예산읍 덕잠골		1705	1714	
	晦庵書院(址)	봉산면 봉림리		1709		
	蘇都督祠(址)	대흥면 상중리		고려		
	牛泉祠宇	대흥면 교촌리	牛井祠	1708		
	忠義祠	덕산면 시량리		1917		
태안군 (1)	崇義祠	남면 양잠리		1851		문화재자료 300 (88.8.30.)
당진군 (2)	東岳書院(址)	송산면 명산리	鄉賢祠	1706		
	忠壯祠	대호지면 도이리		1636정려		문화재자료 215

<표 4> 기호유교문화권과 영남유교문화권의 비교

구분	기호유교문화권 (호서내륙중심)	영남유교문화권 (경북북부중심)	비고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시·군 : 논산, 금산, 대진, 보은, 공주, 부여 · 면적 : 3,820.7km² (전국총면적의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시·군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 면적 : 10,771.3km² (전국총면적의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서내륙은 경북 북부유교문화권의 약 1/3
유교 문화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곡학과(이이) · 이기일원론과 주기론 · 서인계(노론·소론) · 조선후기 여당 (현실참여 강) · 호서내륙에서 중심인물 배출 ※ 다양한 학풍 공존 (人物性同異論爭) ※ 17세기 전국 山林 38명 중 17명이 호서(충청)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계학과(이황) · 이기이원론과 주리론 · 동인계(남인·북인) · 조선후기 야당 (현실비판 강) · 경북북부에서 중심인물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는 기호학과 호서내륙이 기호학과의 중심지
유교문화 자원의 현황과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서지역(27개시·군, 16,558km²)의 향교수 58개소, 서원건립수 135개소 · 호서내륙에 집중 분포(논산지역이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지역(45개시·군, 31,351km²)의 향교수 71개소, 서원건립수 318개소 · 경북북부에 집중 분포(안동지역이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대비 호서가 영남의 약 1/2 · 호서지역은 유교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미 실시
정책	<p>없 음</p> <p>(백제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1999 ~ 2000, 약 6억원) · 11년간(2000 ~ 2010) 2조 2,666억원 투자예정 · 경북도청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설치 	
종합평가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유교문화권의 올바른 가치인식을 위해서는 영남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균형적인 투자 필요 ·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에 준한 개발계획 필요 · 호서 내륙의 유교문화권(논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교육 및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김 문 준*

1. 머리말
2. 유교문화의 가치와 충남유교문화
3. 유교정신의 현대적 의의
4. 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
5. 유교정신 활용의 전제

1. 머리말

충남의 유교문화 개발은 충청남도의 차원에서 지역 이미지 강화의 방안으로서 유교 및 예학 문화를 상징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충남지역의 유교문화권 개발은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그리고 금강생태문화권 개발과 차별되는 의미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충남은 조선 후기 유교문화의 각 모습들을 빠짐없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유교 및 예학문화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큰 경쟁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논산은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중심지인 충청도의 유교문화 특성을 집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정신문화 전통의 계승과 보존이 강한 지역이면서, 조선 선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남아 있는 곳으로 “충청도 유교문화권의 중심”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교문화를 오늘날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박제화하여 타임캡슐에 넣어진 상태로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충남유교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의 경북 유교문화개발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요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유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특성을 되살리는 노력을 그만둘 수 없으며,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수준, 그러면서도 한국인이 창조해온 문화역량, 그 가운데서 충청인이 즐기고 만들어간 문화를 온전히 드러내어 형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충청유교문화권을 개발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러자면 국가에 도움이

* 건양대학교 교수 ·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장

되어야 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충청유교문화에 내재한 정신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그 활용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유교문화의 가치와 충남유교문화

충남유교정신은 17세기 이후 한국유교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별히 충남유학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예학과 의리학에 입각한 예절문화라고 할 수 있다. 충남유교의 내용과 특성은 한국전통유학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이며 전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한국전통유학은 성리학, 예학, 의리학과 체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첫째, 성리학과 예학의 연관성이다. 조선 유학의 핵심인 성리학은 우주, 인간에 적용될 보편적 이론인 천리(天理)를 추구하여 인심(人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기론(理氣論)은 천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주론으로서, 천지의 궁극적 원리인 태극과 인간·만물의 생성원리와 본질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심성론(心性論)은 인간의 심성구조를 이해하고 인간의 심성과 의지로부터 연유되는 선악을 구별하고 심신의 수양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이론이다. 성리학은 예학으로 연장되었다. 예학(禮學)은 우주·자연의 존재론인 이기론과 인간의 존재론인 심성론을 바탕으로 사회윤리·규범을 제도화하려한 학문이며, 이것이 조선 사회의 규범이 되었다. 예학은 사람의 심성이 지닌 어진 인정(人情)문화를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제도화하였으며, 특히 관혼상제의 예제를 정립하여 종법사회를 바탕으로 임진 병자 양란 이후의 국가사회 재건의 기틀을 만든 학문이다.

충청유학(기호유학)은 17·18세기 한국유학의 중심지였으며, 성리학·의리학·예학이 그 사상의 핵심이었다. 특히 한국유학사에서 특이한 발전과정을 보이는 부분이 예학의 발전이다. 한국예학의 핵심은 『가례』이다. 가례(家禮)란 사대부 일반 가정생활의 기본예절로, 한 인간의 모든 일생 과정을 담고 있는 관혼상제 등 사례(四禮)이다. 조선예학은 예제를 성리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예를 행함에 의리와 명분을 핵심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대함에 명분과 사랑과 존경심을 관혼상제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예학은 성리학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이고, 예제와 예설은 그 구체적 표현이다. 예학은 예를 행하는 원리를 탐구하고 체계화하여 의식적인 예 실천을 유도하고, 『가례』의 모든 내용과 조선 속례(俗禮)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 검토를 통하여 가례를 체계화한 학문이다. 특히, 17세기 이후 한국 예학을 선도한 김장생-김집-송시열로 이어지는 사계학파의 예문답서들이 대체적으로 가례 연구에 집중하였다.

둘째, 성리학과 의리학의 연관성이다. 성리학은 인간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학문이며, 자연히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는’ 인간의 처세와 역사참여를 문제시한다.

충청유학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선 도학을 강력한 춘추의리론으

로 확립한 점이다. 춘추대의는 불의를 배격하고 인의를 수호하려는 강렬한 도덕가치론이다. 충청유학의 대표자인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주체적 의리정신은 민족사를 통하여 그 정신적 맥락이 구한말까지 이어져, 근세의 민족주체 의식에 사상적·정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우암은 세도(世道)를 자임하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은 ‘존주자 양이적’(尊朱子 攘夷狄)이었다. 우암은 인간의 소이연(所以然)과 도리를 일깨우고 천리인욕(天理人欲)을 분별하여 선-악, 의-불의, 군자-소인이 나뉘게 되는 근원을 분명히 하고, 인간 개개인과 국가가 이단을 막고 이적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밝혔으며, 난세에 처하여 인도를 행하는 방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충청유학의 학풍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통관이다. 충청유학의 철학과 사상은 철저하게 한국 도학사상의 전통과 도통 위에 건립되어 있다. 도통이란 성현이 서로 주고받아 계승해 간 통서, 곧 성통(聖統)을 의미하며, 성현이란 인극(人極)을 세워 인간 도리의 표준을 세우고 인륜을 행하게 한 자라는 의미이다. 충청유학의 학문·사상·사업은 주자와 이이의 학문에 근거하여 도통을 확립하고 계승하여, '直'철학으로써 춘추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둘째, 직(直)의 철학이다. 우암의 성리사상은 ‘직’으로 귀결되어, 우암은 수양과 행도(行道)를 직으로 요약하여 요결로 삼았다. 직의 정신은 공맹과 주자에게 일관된 도통이며, 송익필·김장생·송시열에게 전수된 기호예학의 심법이였다.¹⁾ 공맹과 주자를 이어 직의 철학을 수립한 송익필의 사상은 김장생에게 전수되었고, 소학과 주자가례의 실천을 통하여 인극을 자각하고 행하려던 김장생은 직을 이어 받아 마음을 세우는 요체로 삼았으며,²⁾ 김장생의 직의 정신은 특히 송시열에게 전수되었다. 우암의 직철학이나 북벌의지는 수오지심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실천이었다. 직의 철학은 송시열 이후 기호학과 노론 계열의 상전(相傳) 심법이 되었다.

셋째, 춘추의리정신이다. 우암은 일생동안 절의를 숭상하여 동주(東周)를 높이고, 대의를 어기는 행위는 엄중히 비판하여 윤기(倫紀)를 세우는 사업에 경주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세도(世道)로서 ‘존왕양이’에 입각한 천명배척의 의리를 강조하였다. 존주·존명의 주(周)와 명(明)은, 인의와 왕도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의 학풍은 그의 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 ~ 1721)가 계승하여 충북 제천을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스승의 학문작업을 계승하고 강문 8학사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 충청유학자들의 성리학과 의리정신은 예절문화로 형상화되었으며 이들의 예절문화는 이후 한국인의 인격과 사회질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예절문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체성 확립과 실천(天理와 禮制)이다. 예의 근거를 밝히고 예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예학에는 도덕적 순수성과 명분(名分)에 따른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신이 깃

1) 上同, 附錄, 卷13, 1: 又曰天地之所以生萬物應萬物 直而已 孔孟以來相傳 惟是一直字.

2) 宋子大全, 卷131, 21: 沙溪之學專出於確之一字 而每以直之一字爲立心之要.

들어 있다. 도덕적 순수성이란 사정(私情)을 절제하고 천리(天理)에 입각한 예를 따른다는 정신이고, 명분에 따른 합리성은 인륜과 종법에 따르는 사회질서를 건설한다는 정신이다.

김장생은 예는 천리에 근본하는 것이며 기강과 인도(人道)의 대단(大端)이라고 하였으며, 김집은 예라는 것은 인욕(人欲)을 절제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법칙이라고 하였다.³⁾ 이러한 것들은 당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17세기 예학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存天理去人欲)’는 이기성정(理氣性情)의 철학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리설에 대한 이해 없이는 17세기 예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예학은 성리학의 ‘존천리(存天理)’를 철학으로 하여 천리의 ‘절문(節文)’을 밝히고, 사회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예학자들은 예행이 단순히 외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주체적으로 발휘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했다. 성리(性理)의 이(理)는 객관적 보편성인 천리(天理)이자 주관적 특수성인 성리(性理)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객관적 보편성을 지닌 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객관적인 예제에 따라 행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예에 의거한 생활은 천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천리란 인간 상호간에 사랑과 공경(愛敬)을 극진히 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둘째, 자기절제의 정신이다. 예학이 추구하는 바는 극기복례를 통해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극기복례는 인간 개개인이 이기심이나 욕심을 극복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예제를 준행하여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가운데서 개개인의 삶을 완수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예학자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정(私情)을 억누르고 예를 따른다(抑情從禮)’는 것이다. 극기를 통해 어질고 선한 자기 본성을 깨닫고, 이로써 스스로 자율 의지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자기를 극복하는 수련 자체가 예의 실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극기하는 과정이 예를 실천하는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예로써 절제하고 예를 실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셋째, 종법질서에 의거한 친애정신이다. 예학자들이 예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례』는 종법(宗法)⁴⁾을 토대로 하며, 종법은 조선조 사회질서의 근간이었다. 김장생과 그 문인들이 주도하여 성립한 17세기 조선예학이 미친 사회적 영향의 하나가 바로 종법제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에 이룩한 제도상의 변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종법제도의 정착이다. 예학이 발전한 17세기는 조선 초기 이래로 정착시키고자 했던 종법질서가 정착된 시기로, 종법질서의 확립으로 인해 친족제도가 부계(父系) 중심적 종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문중 중심적인 사회질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정에서 종자(宗子)와 가부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박하고 근면한 부인상이 확립되었다. 혼인문제에 있어서는 동성동본간의 혼인과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였다. 여자는 부계가족을 위해

3) 『家禮輯覽』 後序. “禮者本乎天理 而紀綱人道之大端”

4) 종법은 조선사회의 친족 원리이며 동족결합의 이념적 기초로서, 宗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宗이란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후손들의 집단이다. 즉 종법은 祭祀者를 정하는 법으로서, 종법에 의한 제사계승을 의미한다. 종법제도의 기본 구조는 祭享者와 奉祀者를 확립하고 봉사자간에 신분상의 차이와 서열 상의 우위를 두는 것이다. 女息과 사위(婿)는 종족 외부인이 되어 종족에서 제외된다.

희생하여 재혼을 하지 않는 열녀를 이상형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중법을 사대부가에 널리 시행하도록 권장하였으나 널리 시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6세기 이후 가문과 문벌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족보와 서원(書院)·사우(祠宇) 등을 세워 가문의 지위를 높이고 현창(顯彰)하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임진·병자 양난 이후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상민(常民)들도 동족을 결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부자(父子)의 관계성(親親)에 따른 인륜질서를 토대로 하여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의 이념하에서 가부장적 권위 구조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당시 예학자들은 부형(父兄)의 자애(慈愛)와 자제(子弟)의 효도를 바탕으로 가족의 친목과 경제적 유대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17세기 충청유현들의 학풍과 사상체계와 예학정신은 이후 한국정신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 이러한 17세기 충청유학의 문화적 의의는 18세기 진경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진경시대’(眞景時代), ‘진경문화’(眞景文化)란 사실적이면서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진 문화시대라는 의미로, 최근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용어이다. 조선후기 문화의 한가지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선후기 한국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진경시대의 조선후기의 문화가 조선의 교유색을 한껏 들어 내면서 성숙한 발전을 이룩한 문화 절정기를 일컫는 말이다. 그 시기는 숙종대로부터 정조대에 이르는 125년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진경문화론은 이미 학계와 지성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주목되고 있는 논의이다.

이 시기의 진경문화가 꽃피워질 수 있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율곡 이이에 의하여 성립되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자주적인 ‘조선 성리학’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조선 성리학 성립에 뒤이어 등장한 17세기 ‘조선예학’에 학문적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17세기는 ‘예학의 시대’라고 칭하는 만큼 예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기였으며, 조선후기 진경문화의 성립 배경에는 조선성리학 이외에도 자주적인 ‘조선예학’이 또한 주목되고 있다. 자주적인 조선성리학의 맥을 이은 조선예학 역시 당시의 자주적 문화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진경문화의 성립과 예학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진경문화론은 조선후기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주적인 인식 경향이며, 조선후기의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적 논리이고, 동시에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응 논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가속화 현상과, 또한 최근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정책 등으로 자기문화의 정체성의 확립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과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문화인식이다.

3. 유교정신의 현대적 의의

예학은 인의(仁義)의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그 제도화는 종법질서로 나타났다. 역정종례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이며, 종법질서는 그 사회형식이다. 극기복례 정신과 종법질서로 요약되는 17세기의 예학은 국가와 사회,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정신과 사상을 가례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인욕(人欲)을 절제하고 ‘천리(天理)의 절문과 인사(人事)의 의칙(儀則)’을 준수하는 문화생활을 토대로, 예치와 문치를 이룬다는 것이 성리학자들의 공통된 사상이었다. 인의 구현은 궁극목적이요, 예교(禮敎)는 그 방법이다. 인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기애인(修己愛人)’을 인문 예교의 덕치로써 구현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 후기의 예학을 번문육례(繁文縟禮)나 공리공담으로 평가하고, 극복되어야 할 전근대적인 중세사회의 허학(虛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예제의 형식적 측면만을 보기 때문이다.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천리(天理)가 내재하므로 인의를 배필 수 있고, 그것은 예의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성과 사회에 대한 명철한 통찰과 인도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간성 신뢰와 인도적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는 오늘날에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성격과 여건을 지니고 있다.

모든 문화의 생명력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때 유지된다. 유교문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중화의 어려움이다. 유교문화는 아직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교문화 자체가 현대사회에 부합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유교는 오랜 자기 절제의 수양공부가 필요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유교문화를 대중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그 동안 유교정신을 계승하는 구심점이었던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은 제사기능만 남아 있고 유림조직인 유도회는 노령화하여 유교 대중화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유교의 가치를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토대와 인생가치관의 변화, 핵가족화, 친족 및 문중조직의 약화, 유교 교육기관의 부재, 제사기능의 약화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는 유교문화가 점차 대중들의 삶 속에서 멀어져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유교문화 유무형의 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유교문화는 최근 100여년 사이에 급속하게 화석화되어 가고 있지만, 유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살아 숨쉬고 있다. 세월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염치심과 예의정신, 관혼상제와 같은 통과례, 충효사상, 경로사상 등 아름다운 풍속이 아직도 일상생활의 행위의례와 윤리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화니 정보화니 하는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 옛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르기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선조들이 닦아 놓은 지혜와 삶의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문화전승과 문화창조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교 전통문화는 계속 우리 일상생활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제도 및 환경 속에서 유교의 문화 전통을 적용시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유익한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교문화를 대중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통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수집(蒐集)하여 전시(展示)하고 시연(試演)하는 일이다. 둘째,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대화하여 교육하는 일이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게 하고, 관광대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물론 전통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대화하여 교육하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4. 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

유교문화활용을 통한 유교정신가치의 현대화는 일반대중이 그 문화를 체험하고 계승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점차 소멸되거나 박제화되어 가는 유교문화재와 가치를 오늘날 일반인들의 삶 속에 다시 소생시키고 쓸모있는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대적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대중이 유교문화를 현대생활 속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일이며, 둘째는 높아지는 문화체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양 측면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며 유교문화와 정신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일반대중이 유교문화를 현대생활 속에서도 유용한 문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생활에 적합한 유교생활문화로 재창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유교문화와 정신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을 주시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를테면, 예절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관혼상제례의 경우, 관례는 청소년에게 성년이 되는 의미를 일깨우는 성인식으로, 혼례는 백년해로와 남녀동등이라는 새로운 혼인문화가 가능한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상례와 제례 또한 간소하면서도 경건한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예식 내용을 재구성해내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인사하기 절하기 식사예절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행동의례를 계승 정립하고 전파하는 일이다.

둘째, 문화체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상품화의 문제이다. 유교문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축제 등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관광상품화로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유교문화를 산업 및 상업화 속에 매몰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을 상품화한다 해도 지역주민의 자부심 속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의 관광패턴이 관람형 관광에서 점차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색적 체

험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주 5일제가 본격화되고 교통 및 인터넷 정보문화가 더욱 발달하면서 이색적 체험의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려는 기회 제공도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현대 도시인들이 새로운 경험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해외관광, 농촌체험, 각종 스포츠와 이벤트, 각종 종교체험과 이색적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수요와 공급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광패턴의 변화가 유교문화체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체험관광 욕구를 유교문화체험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유교문화의 유·무형 유교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색체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체험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형무형의 유교문화재의 상업화보다는 전통유교문화를 체험시키고 교육시키려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원생활체험인 ‘템플스테이 붐’⁵⁾이나 한옥생활체험 사례인 지례의 예술인 촌⁶⁾의 예를 통하여 충남유교문화 관광개발의 시급성을 삼아야 할 것이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은 유교전통문화를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유교문화관광지일뿐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그 원형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전통문화체험의 목적은 그 문화의 전승에 두면서, 현대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험의 강도가 강할수록 체험의 효과는 커지고 체험 만족도도 높아진다. 비록 체험당시는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한 이색 경험이 오히려 큰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기간동안 시행한 불교계의 성공적인 템플스테이를 주목할 만하다. 사찰을 개방하고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인의 사찰문화체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선례를 조건이 다른 유교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죽은 가치로 전락해 가는 유교문화재를 대중들의 유교문화체험의 자원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각종 의례를 포함한 무형의 문화재를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유교문화의 현대화하고 대중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전시 및 시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흥미를 가미하기 위하여 전통유교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성마저 붕괴시켜서는 안된다. 원형 시연과 흥미를 가미한 연

-
- 5) 전남 해남군 대둔사의 ‘대둔사 새벽 숲길’ 프로그램이나 미황사의 ‘청소년 수련회’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수련회 전문사찰로 알려진 화성 신흥사의 경우 연간 수만명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법보신문은 ‘주말을 산사에서’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템플스테이로 적합한 곳을 안내해 주고 있다.
 - 6) 경북 안동 소재. 조선 숙종 때(1663년) 건립된 종택과 제청, 서당 등 10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임하댐 수몰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지례예술인 촌은 종택과 서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방한 최초의 사례이자 한옥생활체험의 효시이다. 지례예술인촌은 처음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의 산실로 기획되었으나 안동의 전통가옥과 양반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방에서 최고의 반가로 손색없는 지촌종택과 그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하회마을과 비교가 되지 않으나, 전통유교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극은 별개이다.

둘째, 체험을 중심으로 하되, 전통유교문화 체험이 유람형 및 관람형 상업관광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유교문화에 담겨있는 정신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전통 의식주를 통한 선비들의 일상생활, 다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배우고 일상생활에 쓸모있는 체험관광이 되도록 유교문화체험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체험 및 관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타 지역민들이 체험교육장을 다녀 온 이후 그곳의 지역문화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최소 부담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 체험자는 교육받고 체험하는 과정에 최소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주체는 유교문화의 대중화에 만족해야 하고 고객은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데 만족해야 한다.

여섯째, 유형·무형의 유교문화재는 역사·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다. 유교문화재의 소유자와 체험참여자는 그것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유교문화체험과 관련된 시설 및 문화재 유지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체험자의 최소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⁷⁾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충남 유교문화 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예절교육을 특성화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와 가정에 적절한 예절교육장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남의 체험관광으로 특성화하면 유아교육에서부터 청소년교육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대단히 큰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활예절교육은 각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맞벌이 부모가 늘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와 음악 등 사교육을 받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생활의 내용이 점차 다변화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많은 시간을 가정 외로 끌어내어 가정교육이 대단히 약화되어버린 상황에서 유아시기부터 간단한 예절을 가르쳐 가정과 동네에서 예절바른 아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예절교육체험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절문화의 계승이라는 거창한 구호 이전에 밥상머리 교육이 거의 사라져 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사회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른대하기, 형제자매 대하기, 친구대하기 등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태도에 관한 훈련을 받은 적이 매우 적다. Roll-play기법 같은 현대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역할에 따른 사회생활 방법을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7) 유승무, 「유교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유교문화 체험의 대중화방안」,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유교현대화 연찬6, 2003 pp56-57참조

주어야 한다.

한국전통의 생활예절문화는 '과거의 민속(民俗)'으로 생각하고, 박제화하여 박물관에서나 만나보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일을 가정과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5. 유교정신 활용의 전제

현재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개발의 현황은 각개 문화유적과 인물들을 여러 형태로 나열 지적하는 수준, 권위적 건축물 중심의 복원과 정비 형태, 유교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효율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의 미숙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유교문화 유산을 올바로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교문화권 개발은 앞으로 유교문화재를 생활공간 속에서 정신적 품위를 지닌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템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특화」된 충남의 문화 특성화를 만들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1) 유교·예학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재음미하고, (2) 이를 충남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표상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그 일환으로 선비·양반·예학·정신의 문화를 발굴 선양 특성화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의 방향은 개발의 대상범위를 유교문화와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자원으로 확대하여,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하여 이를 체험하는 유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소프트)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유교문화자원 개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⁸⁾

-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유교문화 기초자원 조사·정리
- 유학 정신을 알리는 차원의 유교문화재 정비
- 현대에 맞는 유교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유교문화원 설립·운영
- 유교문화 박물관(자료관) 및 시연관 설립·운영
- 각종 유교문화 이벤트로서의 내실있는 선비문화제 개최
- 지역별·의미별·주제별 코스, 체험과 탐방을 겸한 테마 유적답사·체험 코스개발

이렇게 하자면 충남 유교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일관된 개발방향을 다져가야 하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8) 이해준, 「논산유교 및 예학문화권 개발방향과 전망」, 2001 건양대학교 부설 지역문화연구소 심포지움, -논산시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pp51-54

첫째, 충남 유교문화권의 지속적인 개발의지와 일관된 개발방향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관학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유교문화권 개발은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남유교문화권 개발에 필적하는 투자와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학 협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먼저 대학간의 콘소시엄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나 연구소가 각각 이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하나의 주관 대학을 설정하고 이 대학을 중심으로 충남 소재 각 대학의 유학 관련 연구소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이 대학 콘소시엄과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이 협약하고 나가서는 충청북도에도 연계해야 한다.

둘째, 충청 유교문화권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노력이 절실하며, 이에 관하여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만일 충남의 유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의 많은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뿐더러 외국의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논산의 유교문화권을 실질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부여와 공주의 백제문화권과 연계하는 새로운 충남 관광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외국의 관광객이 부여와 공주의 백제문화권을 방문할 때, 공주와 부여만을 방문할 경우 2-3일 관광코스가 되지만, 논산의 유교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코스화할 경우 1일 정도는 더 충남지역에 머물게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관광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충남 유학의 정신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환으로 「유교문화원」 혹은 「예절문화원」을 신설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예학의 발상지인 돈암서원 일대를 「유교문화체험단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충남이 한국의 유교문화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유교문화 개발의 방향이 단순히 유교문화 유적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교문화 체험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반드시 현대적인 시설의 「유교문화원」 혹은 「예절문화원」을 신설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유교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대중들이 다시 유교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대중 스스로가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기회는 거의 얻기 어렵다. 충청남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의 관광개발 및 문화권 개발은 이를 통한 충남 지역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유교문화재의 현대적 의미화와 해설서 제작이다. 문화체험자는 체험을 통해 그 문화를 생동적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생동적인 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형·무형의 유교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오늘날의 현대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전통유교문화의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수동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통유교문화를 눈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만족도를 반감시킨다. 따라서 유교문화를 의미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체험과 관련된 각 문화의 의미를 팜플렛 제작, 디지털정보화 등 체험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체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풍부한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계층별(연령, 성,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로 다양하게 구비할수록 좋을 것이다. 또한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가족단위의 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교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과 상호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답사 프로그램, 불교문화체험, 민속문화체험, 농어촌 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⁹⁾

여섯째,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선비문화나 민속놀이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남유교문화테마 관광산업의 핵심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전시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은 별개이다. 전시와 시연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철저한 고증에 의해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학교(제도)교육과 차별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인력 및 시설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경직성 조직의 관료성 형식화된 교과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구조직 교육조직이 가능해야 한다.¹⁰⁾

일곱째, 유교문화를 전달하는 전문가 양성이다. 전통과 현대감각을 겸비한 교육담당자를 육성해야 한다. 유교문화를 대중화하고 생활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교문화해설서를 제공해야 하고 그것을 해설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전달자(해설사나 시연자)를 양성해야 한다. 진부한 충효교실이나 어린이 예절학교의 프로그램을 보다 아동이나 청소년 감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 유교전통문화를 수집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그 문화를 유지·보전하고 전승하려는 의무감과 애착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예절교육 체험관광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여 직업화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충남유교정신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교육 및 정신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익만을 고려하여 관광과 연계된 사업이 되거나 업적 과시용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되어 전시효과로 마무리되거나 주먹구구식 개발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유승무 위 의 논문 pp.62-63

10) 「우리 민속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정책과제 2001-1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pp. 89-91

慶北儒教文化圈 開發事業 成果 課題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1. 서론
2. '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 조사연구' 사업의 개요
3. 연구 사업중 지역별 복원 재현방안
4. 결론

1.

가

21

가가

1999 2

2000

2000 7

11

2

5

2. ' ,

1) 用役遂行機關

* 대구대학교 주거환경디자인학과 교수 · 대구대학교 박물관장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 ,
- ,
- 가
:
22,666 (: 4,540 : 5,564 : 12,562)
: 5 , 230
: 5 7,985
: 11 , 449
: 160 , 13,444
- : 25 , 3,655
- : 25 , 8,434
- , , : 92 , 1,355
: 467
:
2000 : 32,924
- : 15 17,014
- : 17 15,910
2001 : 61,986
- : 40 44,013
- : 28 17,973
2002 : 81,475
- : 43 60,903
- : 40 20,572
2003 : 93,993
- : 53 70,383
- : 52 23,610

3.

1) 안동 하회마을

(1) :

(2)

:

.

.

·
·
·
·

(3)

,

(4)

·
·
·
·
·
·
·

(5)

: , 가 , , , , ,
,
: ,

2) 안동 내앞마을

(1) :

(2)

:

· ,
· ,
·
· 가 : ,
· ,

(3)

(4)

,

(5)

: , , , , ,
:
:
:
:

3) 안동 도산서원

(1) :

(2)

:

·
·
·
·
·
·

(3)

,

(4)

.

.

.

.

.

.

(5)

:

,

,

,

,

,

,

,

:

가

:

4) 영주 소수서원

(1) :

(2)

:

.

.

.

.

.

.

.

(3)

·
·
·

(4)

(茶啖)

(茶啖床)

(5)

： , 가, ,
： , , ,
：

5) 영주 무섬마을

(1) :

(2)

：
·
·
·
·
·
·
·
· 가

(3)

(4)

가

(5)

: ,
:

6) 영주 부석사

(1) :

(2)

:
.
.
.
.
.
.

(3)

(4)

.
.

(5)

: , 가
:
:
:

7) 상주 경천대

(1) :

(2)

:

.

.

.

.

.

(3)

(4)

(歲一祀)

(5)

:

,

:

3

:

:

8) 상주향교

(1) :

(2)

:

.

,

.

.

.

.

.

,

,

向望闕拜

.

· 가
(3)

·
·
· , ,
·

(4)

가
·
·

(5)

: 가,
:
:

9) 문경새재

(1) :

(2)

:
·
·
·
·
·
· ()
· , , ,
·
·

·
· (驛)
(3)

· ,
- ()

(4)

(5)

· , ,
· , , ,
· ,
· ,

10) 견훤산성

(1) :

(2)

:
·
·
·
·

(3)

, , ,

(4)

·
· ,
가
·가
· 가

(5)

: , 가,
: 가 ,

11) 의성 산운마을

(1) : 1

(2)

:
·
·
·
· , ,
·

(3)

(4)

(5)

： ，
： ， ， 5 ， 5
： ， ，
： ，

12) 의성 사촌마을

(1) ：

(2)

：
· ， ，
·
·
·
· 가 ，
· 가
·

(3)

(4)

， ，

(5)

： ， 3

13) 청송 덕천마을

(1) ：

(2)

：
· 가

.

.

.

. 가

.

.

(3)

(4)

(5)

:

,

,

,

,

,

:

,

(

,

),

,

14) 청송 주왕산

(1) :

(2)

:

.

.

.

.

.

,

(3)

·
· , ,
(4)

(5)
:
:

15) 영양 주실마을. 일월산

(1) :
(2)

:
·
·
·
·
·

(3)

(4)

(精氣)

(5)

： ，
：

16) 영양 연당마을, 두들마을

(1) ：

(2)

：
· ：
· ：

가

·

·

·

·

·

가

(3)

(4)

가

(5)

： ， ， ，
： 가, ， 가
：

17) 영덕 신돌석 의병장 유적

(1) ：

(2)

· 가 , ,
·

· 가
· ,
·

(3)

· 가
· 가
· 가

(4)

가

(5)

:
: ,

18) 영덕 괴시마을, 인량마을

(1) : 1

(2)

:
·
· ,
·
·
·
·

(3)

(4)

,

·
·
·

(5)

: , , ,
: , ()
: 3.1 , , 가
: ,

19)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1) :

(2)

:

·
·

·

·

가
가

·

()

·

· ,

(3)

(4)

·
·
·

가

(5)

∴ , , ,
∴ , 5 ,
∴ , ,
∴

20) 예천 도시복 유적

(1) :

(2)

:

·
·

·

·

·

·

· ()

(3)

가

(4)

()

.

.

(5)

: ()

:

: , , 가 , ,

21) 봉화 답실마을

(1) :

(2)

:

. ,

. 가 , ,

.

.

.

.

(3)

(4)

.

·
·

(5)

·
·
·

22) 봉화 청량산

(1) :

(2)

·
·
·
·

(3)

,

(4)

(5)

:

23) 울진 봉평신라비

(1) :

(2)

：

·

·

가 가

·

·

·

(3)

(4)

講武儀, 試取儀, 遣將出征儀

(5)

： , , ,
：
： ,
： , ,

24) 울진 南師古유적

(1) ：

(2)

：

·

· , ,

가

· 가

·

·

(3)

· 392 가 가
· 4 57 가

·
· 가
·

(4)

(5)

: , , ,
: ,

25) 종합유교문화센터

(1) :

(2)

· 가
· ,

(3)

(4)

(5)

500

(6)

4.

가

21

가가

1. _____, _____
가 _____, _____가

2. 가 가 ,

4. , , 가
 , .

5. 가 가 ,

충남역사문화연구소 학술행사 현황

1. 정기학술심포지엄

□ 제1회 정기학술심포지엄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1년 12월 7일

장소 : 공주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 사회 : 이훈(본원 문화재연구부장)

·

발표 : 임선빈(충청학연구부장) 토론 : 이철성(건양대 교수)

·

발표 : 이강승(충남대 교수) 토론 : 박보현(대전보건대 교수)

·

발표 : 이필영(한남대 교수) 토론 :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장)

·

발표 : 김균태(한남대 교수) 토론 : 황인덕(충남대 교수)

·

발표 : 황의동(충남대 교수) 토론 : 백원철(공주대 교수)

·

· 사회 - 윤용혁(공주대 교수)

□ 제2회 정기학술심포지엄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2년 10월 10일

장소 : 공주대학교 연구관회의실

· 사회 : 이훈(본원 문화재연구부장)

·

발표 : 윤용혁(공주대 교수) 토론 : 박상훈(충청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

발표 : 이남석(공주대 교수) 토론 : 이강승(충남대 교수)

·

발표 : 이왕기(목원대 교수) 토론 : 장호수(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

발표 : 이필영(한남대 교수) 토론 : 석대권(대전보건대 교수)

·

· 사회 : 이해준(본원 연구소장)

2. 워크숍

□ 제1회 워크숍 "충남 역사문화연구의 새로운 모색과 과제"

일시 : 2001년 9월 14일

장소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

.

발표 : 최근묵(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

발표 : 임선빈(충청학연구부장)

.

발표 : 이훈(문화재연구부장)

□ 제2회 워크숍 "충남지역사 서술의 체계와 자료활용"

일시 : 2001년 11월 23일

장소 :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교수회의실

· 사회 : 강종원(충남발전연구원)

.

발표 : 김수태(충남대 교수)

.

발표 : 이병희(한국교원대 교수)

.

발표 : 김동수(전남대 교수)

.

발표 : 지수걸(공주대 교수)

.

· 사회 - 이해준(공주대)

조법종(우석대) · 김갑동(대전대) · 한기범(한남대)

박찬승(충남대) · 김양식(충북학연구소) · 임선빈(충남발전연구원)

□ 제3회 워크숍 "시·군지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민속분야의 서술체계-"

일시 : 2002년 6월 7일

장소 : 한남대학교 성지관 대학교회

· 사회 :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

발표 :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장)

.

발표 : 김명자(안동대 교수)

.

발표 : 이필영(한남대 교수)

.

발표 : 주강현(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

· 사회 - 이해준(본원 연구소장)

석대권(대전보건대 교수) 신상찬(서산문화원 부원장)

임영수(연기향토박물관장) 오석민(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4회 워크숍 "충청남도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일시 : 2002년 6월 20일

장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세미나실

· 사회 : 이훈(본원 문화재연구부장)

.

발표 : 장호수(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토론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발표 : 박순발(충남대 교수) 토론 : 조상기(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발표 : 박보현(대전보건대 교수) 토론 :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 사회 - 이강승(충남대 교수)

□ 제5회 워크숍 "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2년 12월 6일

장소 : 한남대학교 박물관

· 사회 -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

발표 : 석대권(대전보건대 박물관과 교수)

.

발표 : 주인택(광주시립박물관 학예실장)

토론 : 강진갑(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이우권(인덕대 교수)

.

발표 : 최종호(명지대 겸임교수)

토론 : 한동민(중앙대 사학과 강사), 안덕임(한서대 박물관장)

.

발표 : 오석민(본원 연구위원)

토론 : 전경목(전북대 박물관), 이상엽(태안패총박물관)

□ 제6회 워크숍 “충남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일시 : 2003년 4월 25일

장소 :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세미나실(1층)

· 사회 - 오석민(본원 책임연구원)

.

발표 : 황인덕(충남대 교수)

.

발표 : 최운식(교원대 교수)

.

발표 : 정희정(한남대 강사)

.

· 사회 - 김균태(한남대 교수)

이창식(세명대 교수) 황의호(대천여고 교감)

백원철(공주대 교수)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이소라(문화재청 전문위원) 문희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7회 워크숍 “충남지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

일시 : 2003년 6월 13일

장소 : 고려대학교 인문관 고고미술사학과 전용강의실

· 사회 - 이훈(본원 문화재연구부장)

.

발표 : 한창균(한남대 교수)

토론 : 성춘택(충남대 교수)

.

발표 : 이홍종(고려대 교수)

토론 : 이영문(목포대 교수)

.

발표 : 박순발(충남대 교수)

토론 : 함순섭(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 사회 - 이강승(충남대 교수)

3. 기타 학술행사

□ 내포문화의 재조명 (충남발전연구원 제7회 정기심포지엄)

일시 : 2001년 11월 6일

장소 : 홍성 문예회관

· 사회 :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

발표 : 유홍준(영남대 교수)

.

발표 : 최완수(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발표 : 이성무(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발표 : 임동권(중앙대 명예교수)

.

발표 : 김용웅(국토연구원 부원장)

□ 김종서 장군 학술세미나 (공주인물사 학술세미나 I)

일시 : 2001년 11월 22일

장소 : 공주시 문예회관

· 사회 : 강종원(본원 책임연구원)

.

발표 : 정구복(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발표 : 백원철(공주대 교수)

.

발표 :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

· 사회 - 윤용혁(공주대 교수)

한기범(한남대 교수) 송인창(대전대 교수) 이준원(공주대 교수)

□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예산군 효행사례 연구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일시 : 2002년 10월 16일

장소 : 예산문화원

· 사회 - 오석민(본원 연구위원)

.

발표 :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토론 : 이효범(공주대 교수)

.

발표 : 윤용혁 (공주대 교수) 토론 : 서의식(서울산업대 교수)

· 사회 - 권영현(본원 디자인팀장)

.

발표 : 허원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 박광수(목원대 강사)

.

발표 : 사재동(충남대 명예교수) 토론 : 이항복(예산향토문화연구소장)

.

발표 : 오석민(본원 연구위원) 토론 : 이경진(공주대 교수)